

국가: 역사에서국가의역할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표트르알렉세예비치크로포트킨
국가: 역사에서국가의역할
1896

차례

I		3
II		5
III		8
IV		13
V		17
VI		20
VII		24
VIII		28
IX		32
X		37

I

「국가 - 역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문의 주제로 선택할 때, 나는 국가의 이념, 본질, 과거의 역할, 국가가 미래에 갖게 될 의미에 대한 진지한 연구에서 언급되는 요구들에 대해 생각했다.

다양한 성격의 사회주의자들은 국가 문제에 대해서로 다른 입장을 보인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분파 중에서 즉, 기질, 사유방식, 특히 다가오는 혁명에 대한 확신에서 차이를 보이는 분파는 두 경향으로 구분된다. 한 쪽은 대부분의 국가 기능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고, 혁명을 위해 이용하면서 국가를 수단으로 사회혁명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다. 다른 쪽은 우리와 비슷하게, 국가는 현대적인 국가 체제 혹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국가 체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본질 자체가 사회혁명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즉 국가는 자유와 평등에 근거한 사회 발전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러한 발전을 방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적 형식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입장을 갖는 사람들은 국가의 개조 대신,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추구한다.

분명 차이는 매우 크다. 현재 철학과 문학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회 활동에서 싸우는 두 흐름은 이런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통용되는 개념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 지리멸렬하다면, 조만간 공산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사회의 삶 속에 실현하려는 노력이 시도되는 순간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때문에 늘 현대 국가를 공격하는 우리들에게 국가 탄생의 기원을 밝히고, 국가의 역사적 역할을 연구하여 국가를 그보다 앞선 제도들과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우리가 ‘국가’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가에 합의해야 한다. 독일에는 **국가**와 **사회**를 혼동하는 학파가 있다고 한다. 개인과 개별 지역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역

¹ 나는 1896년 볼프파리에서 예정된 강연을 위해 이 글을 썼다. 그러나 프랑스에 입국할 때 체포되어 추방되었기 때문에 강연을 할 수 없었다. 당시의 강연원고를 약간 다듬어는 문으로 만들었다. (크로포트킨)

압이없는사회는상상할수도없다고여기는프랑스연구자들도, 심지어진지한독일사상가들도국가와사회를혼동하고있다. 바로이로부터아나키스트들은‘사회’의파괴를원하며, ‘개인과전체의영원한투쟁으로의회귀’를설교한다는귀에익은비난이나타난다.

하지만완전히다른두개념인‘국가’와‘사회’를혼동하는것은지난 30 년동안역사분야에서만들어진모든성과들에역행하는것이다. 이런혼동이발생하는이유는, 국가가나타나기전에이미인간은수천년동안사회를이루며살아왔기때문이다. 또한현대유럽민족들사이에국가는가장최근에생긴 16 세기이후에발전된현상이라는것을잊고있기때문이다. 더구나인류의삶에서가장빛나는시대는지방적자유와삶이아직국가에의해억압당하지않았던, 다수의사람들이공동체와자유도시에서살았던때라는사실을잊고있기때문이다.

국가는사회가역사의흐름속에서채택한여러형식들중하나일뿐이다. 사회와국가에대한개념들은어떤식으로혼동될수있는가?

다른한편으로, **국가와 정부가** 혼동되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 국가는정부없이생각할수없기때문이며, 때로사람들은국가의폐지가아니라정부의폐지를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하기도한다.

그러나국가와정부는다시서로다른두종류의개념을대표한다. 국가의개념은사회를지배하는권력의존재를포함한다. 뿐만아니라, 지방에대한 **지배를 중앙에 집중시키는 것, 즉 통치지역의 집중화, 사회적 삶의 많은 기능들을 몇몇 혹은 전체의 손에 집중시키는 것**을포함한다. 국가는사회의다양한구성원들사이에완전히새로운관계가발생하는것을전제로한다.

이러한특수한차이는잘포착되지않지만, 국가의기원을연구하면뚜렷하게드러난다. 국가를이해하기위한유일한수단은국가의역사적발전을연구하는것이다.

고대로마제국은엄밀한의미에서국가였다. 지금까지도그것은모든법전문가들의이상으로남아있다. 제국의기관들은광범위한영토를그물처럼덮었다. 경제생활, 군대행정, 사법, 부富, 교육, 심지어종교까지 - 모든것이로마에집중되었다. 법률, 재판관, 영토를방어하기위한군대, 지방을통치하기위한총독, 신들은로마로부터나왔다. 제국의모든삶은원로원으로, 후에는전지전능한제국의신神인황제에게로향했다. 각지방과주변지역에는작은규모의신전과로마전제권력의지방정부가있었고, 모든지방의삶은이곳으로부터시작되었다. 유일한법, 로마가제정한법이제국을통치하였다. 이제국은시민들의연합이아니라, 신민들의집합체였다.

심지어우리시대에도, 법률가들과통치자들은, 그들의표현대로, 이제국의단일성, 법의단일한정신, 조직의미와조화에매혹당하고있다.

그럼에도한편으로는내부적인분열, 다른한편으로는외로부터야만족의침입, 외부로부터의공격에서항할능력이없는지방의소멸, 중앙으로부터확산된국

그때문명은로마로옮겨갔다. 이곳에서우리는다시원시종족으로부터의태동을만나게된다. 그다음에는농촌공동체와자유도시가뒤를잇는다. 다시이단계에서로마문명은절정에이른다. 그러나다음에국가, 제국이등장하고이와더불어끝, 죽음이왔다!

로마제국의폐허위에서문명은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 스칸디나비아족사이에서다시태어났다. 농촌공동체를형성하기전까지원시종족들은천천히자신들의제도를만들어갔다. 그들은 12 세기까지이단계를살았다. 그때공화적자유도시들이생겼다. 이도시들은인류지혜의찬란한개화를실현하였다. 이에대해증명하고있는것은건축가들의기념물, 예술의발전, 우리의자연과학의토대를놓은발견들이다. 그러나그후에국가가무대에등장하였다. 다시죽음이왔을까? 그렇다면, 그것은죽음혹은재생이라할수있다! 우리가자유롭고반국가적인토대위에서사회를재건할수없다면그것은죽음이다.

둘중의하나. 국가는폐지되어야하고, 그러한경우에정력적인, 개인적인그리고집단적인주도권에기초한수천의중심에서새로운삶이시작될것이다. 혹은국가는개인과지방적삶을압살할것이다. 국가는인간활동의모든영역을지배하고, 권력장악을위한전쟁과내적인투쟁을수행하고, 폭군들을교체하기만하는피상적혁명을일으킬것이다. 그리고피할수없는끝, 죽음이온다!

스스로선택하라!

마을에서, 공장혹은철도를중심으로형성된사람들의그룹속에서창조적이고창의적인그리고조직된정신이각성되어야한다. 우리가최초로현대사회조직에, 상업혹은행정제도에순응을대기로결정한그시간부터개인들과인간그룹들사이의모든관계는개혁되어야할것이다.

그들은민중적창조의자유로운활동을요구하는이거대한파업을국가의틀속에억지로밀어넣기를원한다. 또한국가의본질을구성하는피라미드조직으로구속하기를원한다! 우리가본것처럼, 국가의존재의미는, 개인의억압에, 모든자유로운조직화와자유로운창조의파괴에, 모든개인적자기주도에대한중오에그리고 **유일한**이념의 (이유일한사상은필연적으로평범성의이념이될것임에틀림없다.) 승리에있다. 그들은이러한국가혹은메커니즘으로부터거대한변화의실현을위한무기를만들기를원한다! 그들은명령을통해, 선출된다수를통해모든사회적개혁을관리하기를원한다! 얼마나나유치한일인가!

우리문명의역사에는두흐름, 두적대적인전통이있다. 그것은로마적전통과민중적전통, 황제적전통과연방적전통, 권력의전통과자유전통이다. 그리고거대한사회혁명전야인지금도이두전통은다시얼굴을 마주하고있다.

민중적흐름혹은정치적종교적지배를열망하는통치지향적소수의흐름, 서로싸우는이두흐름중에서우리가어떤것을선택해야할것인가는의심의여지가없다. 우리의선택은이루어졌다. 우리들은자유로운합의에, 개인의자유로운자기주도에, 필요한사람들의자유로운연합에기초한조직으로사람들이끌었던그흐름에찬성한다. 다른사람들이원한다면교회법과황제권력의로마전통을고집하게놔두어라!

역사는유일한, 중단되지않는발전과정을제시하지는않는다. 때로발전은세계의한부분에서는중단되고, 다른부분에서재개되기도한다. 이집트, 아시아, 지중해연안, 중앙유럽은차례로역사발전의무대였다. 매번발전은원시종족으로부터시작되었다. 그후에자유로운도시들의시대가등장했고, 마지막으로국가의시대가왔다. 국가의시대에발전은일정기간계속하다가그후에는급속히소멸되었다.

이집트에서문명은원시종족사회에서시작되어, 마을공동체단계에도달하였고, 그후에자유도시의시기를경험했으며, 나중에이르러서는국가의형태를갖게되었다. 그리고이국가는일시적인개화이후에나라의멸망을초래하였다.

발전은아시리아, 페르시아, 팔레스타인에서다시시작되었고, 다시원시종족, 농촌공동체, 자유도시, 강력한국가의단계를지나멸망에이르렀다!

새로운문명은그리스에서발생하였다. 다시원시종족으로부터시작하여점차농촌공동체를거쳐, 그리스문명은공화도시의시기로들어갔다. 이단계에서그리스문명은완전히개화하게되었다. 그러나동쪽으로부터동방전통의독을품은바람이불어왔다. 전쟁과승리는알렉산드로스의마케도니아제국을창조하였다. 국가가수립되어문명으로부터생명의줄을빨아들이기시작하였다. 국가의끝, 즉죽음이드래할때까지!

가적타락은제국의몰락으로이어졌고, 제국의폐허위에서새로운문명, 즉우리의문명이태어났다.

고대동방의역사는제쳐두고, 신생야만문명²의발생과성장을 - 이신생야만문명이지금우리의현대국가를탄생시킨그시점까지 - 연구한다면, 국가의본질은완전히명백해질것이다. 심지어그본질은우리가로마제국, 마케도니아왕국, 동방의전제왕권에대한연구에몰두하는것보다더명백해질것이다.

II

지난세기대부분의철학자들은인간사회의기원을매우단순하게설명하였다.

우선인간은작은가족을이루어살았고, 이들가족들사이의적대감이일반적상태가되었다고그들은말한다. 그러다어느멋진날이끝없는투쟁의불편함을확신한사람들은사회를만들기로결정하였다. 분리되어있던가족들은서로합의하여사회계약을맺고자발적으로권력에복종하였다. 초등학교부터배운것처럼이권력이오늘날모든인류진보의원천이며기초가되었다는것이다. 오늘날우리의정부들은지금까지도시상의소금이라는이교상한역할을, 인류의중재자이며교화자의역할을구현하고있다고한다. 적어도, 모든교과서와심지어많은철학논문은그렇게가르치고있다.

이이론은인간의기원에대해서매우적게알려진시대에만들어져, 지난 100년동안지배적인이론으로발전하였다. 우리는백과전서파와루소의‘사회계약론’이왕권신수설과의투쟁에서강력한무기였음을인정해야한다. 그러나이이론이과거에어떤공을세웠건간에, 오늘날우리는그것이오류임을인정하고거부하여야한다.

몇몇맹수들과멸종되고있는종을제외하면, 실제로모든동물들은사회를이루며산다. 사회를이루어살고있는동물들은생존을위한투쟁에서비사회적동물보다언제나유리하다. 이들은동물의위계에서가장높은위치를차지한다. 최초의유인원들이이미사회를이루며살았다는것은이제의심의여지가없다. 사회는인간

² 역주 - 크로포트킨이‘신생야만문명’이라표현한것은서로마제국멸망이후에나타난신생유럽문명을의미한다. 여기서‘야만’으로번역한‘Barbarian’은어원적으로그리스인의관점에서‘그리스어를하지못하는, 외국인의’를의미하며, 비그리스인혹은비로마인을의미하는라틴어‘Barbaria/barbarus’에서유래하였다. 역사적으로이단어는서로마제국을멸망시키고유럽의중세를열었던게르만족을주로의미하며, 크로포트킨도이런관점에서이용어를사용하고있다.

에의해서고안된것이아니다. 사회는최초의유인원들이나타나기이전부터존재했다.³

또한인류학이완벽하게증명하고있는것처럼, 우리는특정가족이아니라 **씨족** 혹은 **종족**이인류의출발이되었다는것을알고있다. 현재우리가갖고있고, 고대유럽전설에서발견되는가부장적가족은훨씬후에나타났다. 그이전에인간은이미수천년동안씨족 혹은 종족으로살아왔다. 이첫번째기간동안 - 편의상이기간을미개종족 혹은 원시종족 시대라고부르도록하자 - 가부장적가족제도에앞선일련의제도, 습관 혹은 사회적관습들이이미인류를위해만들어졌다.

사회를이루며살고있는많은포유류속이고립된가족이없는것처럼, 고립된가족은원시종족사회에존재하지않았다. 종족은오히려세대에따라구분되었다. 서로다른세대에속한남녀사이의혼인을허용하지않고, 동일세대내에서만혼인을허가하는관습이인류의기억에서사라진, 아득한옛날부터생겼다. 이시기에대한흔적들은지금도몇몇종족에게서발견된다. 또한그런흔적들은더높은단계의발전을이룬민족들의언어, 풍속, 미신에서도발견된다.

이시기에서유재산의축적은가능하지않았다. 종족의구성원들개인에속한것은그가족은후에모두시체와함께소각되거나폐기되었기때문이다. 이것은지금까지도영국의집시들사이에서행해지고있다. 이풍속의흔적들을우리는문명화되었다는모든민족들의장례의식에서도찾을수있다. 중국인들은망자가소유했던물건들을종이모형으로만들어소각한다. 우리에게말과갈그리고혼장이전사자들의뒤를따르게하는풍속이있다. 이풍속의의미는잊혀지고없지만, 형식은보존되고있다.

원시인들은인명을경시하지않았을뿐만아니라, 살인과유혈을싫어했다. 인간뿐만아니라, 곰과같은몇몇동물들의피를흘리는것까지도매우큰범죄로여겼으므로, 잘못을범한사람은동일한양의자기피로흘린피에대해보상해야했다.

이렇게자기종족의구성원에대한살인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안이었다. 예를들어, 우리는석기시대인들의후예로서지금까지극지방에살고있는이누이트 혹은에스키모들에게서그러한예를볼수있다. 그러나서로다른기원, 피부색, 언어를갖는종족들이유랑중에서로충돌하게되면, 종종그들사이에전쟁이일어나기도하였다. 하지만그당시에이미사람들은이충돌을가능하면완화시키려고애썼다. 메인(H.Maine), 포스트(August von Post), 니스(E.Nys)의연구가보여주듯이, 후에국제법의기원이될수있는관습들은이미그당시에나타나기시작했다. 예를들면, 마을주민들에게미리경고하지않고마을을공격해서는안되었다. 또한어느누구도여인들이물을길러다니는길에서절대살인을감행하지않았다. 종족사이에서평화를협상할때, 살해당한사람이많은쪽은다른쪽에서그에상을하는보상을받았다.

³ 이러한입장에대한더상세한설명은내저서인『상호부조론(Mutual Aid), 2판, 1904』와 이것의독일어번역인『상호부조론(Gegenseitige Hilfe), Leipzig, 1904』에서볼수있다.

의억압이심했던유럽군주국에서도이미이루어졌던것들이다. 그렇다면프랑스에서이런이상한국가체제, 즉공화적군주국은어디에서왔는가?

그것은프랑스가 30 년전과같은성격의국가였고, 여전히그런국가란사실에서연유한다. 통치자들의이름은바뀌었지만, 로마제국을모델로프랑스에창조된거대한관료제는살아남았다. 바람에큰길가의나무가쓰러지면, 이거대한메커니즘의바퀴는전처럼 5~10 장의서류를교환하는일을계속할것이다. 서류위의도장은변했지만, 국가와국가의정신, 기관, 지역적중앙집권화와기능의중앙집권화는변함없이남아있다. 더구나, 모든기생충이그런것처럼이들은매일점점더나라전체로확산되고있다.

적어도진실한공화주의자들은공화주의적의미의변화를이룩하기위해국가의조직을성공적으로이용할것이라는희망을갖고있었다. 그들또한스스로오랫동안그것에만족해왔다. 우리는지금그결과를보고있다.

낡은조직을폐지하고, **국가**를폐지하고, 농촌공동체, 자유노동조합등의사회단위로부터출발하여새로운연합형식을창조하는대신에, 그들은‘낡고이미존재하는조직들을사용하기’를원했다. 이것은역사상의제도가이러저러한경향속에서하고싶은대로작동하도록강요해서는안되며, 제도는고유한발전의길을간다는진실을몰라서하는소리다. 결국그들은스스로가이제도에흡수되고말았다.

하지만여기서문제가된것은아직사회의모든경제적관계들의변화는아니었다. 이문제는현재우리에게도진행중이다. 문제는사람들사이의몇가지정치적관계의변화에만있었다.

이런완전한실패와가련한결과에도불구하고, 민중의한국국가권력의쟁취만으로도충분히사회혁명을완성할수있다고말하는사람들이있다. 그들은우리에게여전히같은말을반복하고있다. 낡은기계, 낡은메커니즘은자유를파괴하고, 개인을노예화하며, 박해를위한법적근거를모색한다. 또한, 지속적으로노예적사고에익숙하게만들고, 그결과인간의지혜를흐릿하게하려는목적으로역사와정속에서서서히제작되었다. 그러나이모든실패에도불구하고, 그들은낡은기계, 낡은메커니즘이기적처럼새로운역할에유용할것이라고우리가믿기를원한다. 즉그것들이느닷없이무기와기반이되어, 그안에서새로운살이창조되기를원한다. 그리고경제적기초위에자유와평등이확립되고, 사회의각성과더 나은미래가도래할것이라한다.

이얼마나어리석은생각인가! 역사에대해얼마나무지한가!

사회주의의폭넓은성장을위한공간을제공하기위해서는, 협소한소산인적개인의주의에기초한현대사회를완전히개혁해야한다. 문제는, 가끔형이상학적언어로표현되고있는것처럼, ‘노동의모든생산물을노동자에게돌려주는것’뿐만아니라, 교회장로들혹은역장에대한주민들각각의관계에서시작하여, 다양한수공업자들, 농촌마을들, 도시들, 주들사이의관계에이르기까지, 사람들사이의모든관계의성격을변화시키는것에있다. 공장, 철도, 농촌마을, 식료품창고, 소비와생산, 분배에서이모든것은새롭게개혁되어야한다. 이를위해모든거리에서, 모든

이글에서는피상적으로밖에다룰수없지만, 여러분은이모든사실들에주목할 필요가있다. 여러분은역사에서국가는어떤모습을갖고있으며, 본질상국가앞으로어떤모습으로존재할것인가를보게될것이다. 그렇다면우리들처럼여러분도사회제도가공평하게모든목적에위해봉사할수없다는것을확신할수있을것이다. 왜냐하면모든기관처럼사회제도의발전은공평하게모든사람을위한것이아니라, 하나의일정한기능을위한것이기때문이다. 그러하면여러분은우리가왜국가폐지의불가피성이란결론에도달할수밖에없는지를이해할것이다.

사람들사이의자유로운연합을방해하고, 지방의자기주도적발전을가로막고, 존재하는자유를교살하고, 새로운자유를생성을방해하는일, 인간사회의역사에서이모든일들의수단이된제도들은국가의것이였음을우리는알고있다.

그제도들은수세기동안살아남아역사에서일정한역할을완수하기위해일정한형식으로자리잡았다. 그러한제도들이지금까지한것에반대되는역할을할수없다는것을우리는알고있다.

이것은역사에대해생각해본사람이라면누구도부정할수없는결론이다. 그러나이결론에대한답으로그들은우리에게뭐라고말하고있는가? 그들은우리에게거의어린애같은반론을제기한다. “국가는있다. 국가는존재하고있으며준비된강력한조직이다. 그조직을이용할수있다면, 왜그것을폐지해야하는가? 사실, 국가조직은해롭다. 그러나그것은국가조직이착취자들의손에있기때문이다. 그것이민중의손에떨어지면, 왜선한목적에위해민중의행복을위해봉사할수없다는말인가?”

이것은전제專制를해방의무기로바꾸려고했던실러가쓴포자후작의²⁴ 꿈이거나, 가톨릭교회로부터사회주의의지렛대를만들려고했던줄라의소설 『로마』의프로만수도원장의꿈일뿐이다!

이런주장에답해야한다는것은서글픈일이다. 그런식으로판단하는사람들은국가의역사적역할에대해최소한의이해도갖지않고있는것이다. 혹은사회혁명을가련하고보잘것없는모습으로상상해서사회주의적지향과는아무런공통점을소유하지못한자들이다.

프랑스를구체적인예로들어보자. 형식은공화국임에도불구하고프랑스의제3 공화국은본질상여전히왕정체제라는놀라운사실을우리는모두알고있다. 프랑스를공화국으로만들지못했다는사실때문에모두제3 공화국을비난한다. 나는제3 공화국이사회혁명을위해아무것도하지않았다고말하는것이아니다. 내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제3 공화국이공화국의풍속과공화국의정신조차도가져오지못했다는것이다. 사실풍속의민주화혹은계몽의확산을위해지난 20 년동안실제로 이루어진많은것들은모든곳에서, 심지어우리가경험한시대정신

²⁴ 역주 - 실러 (Johann Christoph Friedrich von Schiller. 1759-1805) 의비극 「돈카를로스 (Don Karlos)」 의등장인물.

그때에는하나의일반원칙이다른것들을지배하였다. ‘너희들이우리들중의하나를죽이거나상처를입혔다. 때문에우리에게는너희들중의하나를죽이거나똑같은상처를입힐권리가있다.’ 이것은누구라도상관없었다. 왜냐하면종족전체가구성원들각각의행동에대해책임을졌기때문이었다. “피에는피, 눈에는눈, 이에는이, 상처에는상처, 목숨에는목숨 (코니히스바르터 [L.Königswarter] 가정확하게지적한것처럼“그러나그이상은아니다.”)”이라는성경의유명한구절은바로이러한관습으로부터유래하였다. 정의에대한이사람들의관념은바로그랬다. 우리가그들앞에서특별히우쭐해할것이아무것도없었다. 지금까지우리형법을지배하는‘목숨에는목숨’의원리도수많은유산들중의하나일뿐이기때문이다.

이렇게, 원시시대를거치는동안일련의사회적제도들이만들어졌고 (이들중많은것들은일단체제두도록하자), 종족들의총체적행위규범들이 (물론구두로) 정해졌다. 사회규범의핵심내용을유지하기위해서는풍습, 관습, 설화說話의힘만으로도충분했으며, 다른어떤권력도존재하지않았다.

물론원시인들에게도일시적인지도자들이있었다. 마술사와비를부르는주술사들은, 즉당시의학자들은자신의종족들을지배하기위해자연에대한실질적인혹은그렇듯해보이는지식을사용하려고노력하였다. 설화에담긴속담과노래를다른사람들보다잘기억하는사람들이바로그렇게영향력과권력을획득하였다. 이미당시에‘지식이있는사람들’은인간을지배할권리를장악하려고애를썼으며, 선택된자들을제외하고는어느누구에게도자신의지식을전수하지않았다. 우리가알고있는것처럼모든종교, 심지어모든예술과기술들도처음에는다양한‘비밀들’에싸여있었다.

이렇게종족들이충돌하고이동하는기간에는가장용맹하고용감한특히피많은자들이일시적지도자가되었다. 그러나법의수호자, 전투의지휘자, 마술사들사이의연합은아직당시에는없었다. 때문에벌과개미사회에서처럼혹은현대의파타고니아인⁴과에스키모들의경우처럼, 원시종족들사이의국가는언급의대상이될수없었다.

인간은이러한상태에서수천년을살았다. 로마제국을멸망시킨야만족들도그것을경험하였고, 동시에바로그러한상태로부터빠져나왔다.

기원후처음수백년동안중앙아시아와북아시아에거주하던종족들과종족연합들사이에서대규모이동이시작되었다. 크고작은규모의이웃종족들로부터압박을받던수많은사람들이아시아고원지대로부터이동을시작하였다. 강과호수의물이갑자기말라버렸기때문에그들은그곳을떠날수밖에없었다. 그들은평원과유럽을향해서쪽으로이동하면서, 다른종족들을밀어내며점차서로섞이게되었다.

이이동의시기에기원과언어가서로다른몇몇종족들은섞이게되었고, 그당시대다수유럽의원시적원주민들에게존재하던원시종족의관습은불가피하게붕괴

⁴ 역주 - 아르헨티나남부에위치한파타고니아초원지대의원주민.

되고말았다. 원시종족연합의기초는공통의조상과그들에대한숭배에있었다. 그러나이동의혼돈속에서그리고여러종족사이의전쟁속에서형성된집단들사이에도대체어떤기원의공통성이존재할수있었을까? 심지어몇몇종족들에서가부장적가족이탄생하고있었다. 이가족은이웃종족에게서탈취하거나약탈한여성들을몇몇인물이소유함으로써형성되었다.

과거의관계는끊겼고, 완전한파멸을 (그이후역사에서완전히사라진많은종족들이그러한운명을겪었다) 피하기위해서는새로운관계들을만들어내야했다. 그리고새로운관계들이나타났다. 그들은 **토지**의공동소유, 즉각각의종족들이정착한지역의공동소유에서새로운관계를찾았다. 공통으로알고있는지역, 이러저러한계곡과구릉들의소유는새로운협약을기초로만들어졌다. 조상신은모든의미를상실하였다. 새로운지역의계곡, 강, 숲의신들이조상신들의자리를대신하고, 새로운연합에종교성을제공하게되었다. 다른종교의유산들을기꺼이수용했던기독교는훗날모든곳에서지역고유의성인들을만들어냈다.

그때이후전적으로혹은부분적으로독립적인가족들로구성된농촌공동체는토지의공동소유에의해결합되었고다음수세기동안민족연합을위해필수적인연결고리가되었다. 농촌공동체는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광대한지역에지금까지도존재한다. 게르만인, 스칸디나비아인, 슬라브인등로마제국을멸망시켰던야만인들도그런체제아래살았다. 야만인의법⁵, 카빌족⁶, 몽골족, 아프리카인그리고다른민족의현대농촌공동체연합사이에서배적인관습과법들을연구한덕분에, 우리는동시대문명의출발점으로작용했던사회형태를완전하게복원할수있게되었다.

III

오늘날처럼농촌공동체는과거에도각각의마을에서토지를공동으로소유하고있는개별가족들로이루어졌다. 그들은토지를공동유산으로보았고, 가족의크

⁵ 야만인의법이란개념은보통‘랑바르덴 (Langbarden : 긴수염)’족과바바리아족등이만든, 지금까지살아남은법을의미한다. 우리의 『야로슬라프러시아법』 도이에속한다. 분량때문에나는‘비분화가족’에대한서술은제외하였다. 이것은매우넓게퍼져있는생활공동체로, 인도에많이발견되며, 중국가정생활의토대를이룬다. 우리의경우에는‘세메이스키예’, 즉자바이칼리아의구교도들이이에해당된다. 비분화가족은씨족과농촌공동체사이에위치한다.

⁶ 역주 - 알제리북부지역에거주하는종족.

은아나키스트들을미워한다. 요즘우리는발걸음을땔때마다그런사람들을만나게된다.

이런현상은국가가젊은이들의생각속에교묘하게자발적인노예의식을주입했고지금까지도주입하고있기때문이다. 목적은국가에대한국민들의종속을영원히확고하게하는것이다.

그들은자유에대한사랑으로충만한철학을가톨릭·국가철학으로교살시키기위해온갖노력을다하고있다. 그들은역사를왜곡하고 (메로빙거왕조, 카롤링거왕조그리고류릭왕조에대한황당한이야기를전하는첫페이지부터, 자코뱅당을찬미하는마지막페이지까지), 민중이사회제도의창조에서수행한역할에대해서는침묵한다. 그들은머리가돌인교회와국가라는우상의이익을위해심지어자연과학까지도왜곡한다. 군인, 성직자, 사형집행인의삼자연합을정당화하기위해개인심리그리고사회심리를매번왜곡한다.

수세기동안교회혹은성서에대한복종을설교했던도덕이론들도이제는그고삐를벗어버리고국가에대한복종을설교하고있다. “이웃들에대한관계에서그대들은그어떤직접적인의무도갖지않는다. 그대들에게는서로사랑하는마음도없다. 그대들의모든의무는국가에대한의무다. 국가가없다면너희들은서로의목을물어뜯을것이다.” 스스로를‘과학’이라부르는새로운종교는우리를이렇게가르친다. 그리고한편으로종교는여전히남은로마와황제의신에게기도한다. “이웃, 친구, 공동체구성원, 시민, 그대는이런것을잊어야한다! 그대는국가의기관들을통해서만다른사람들과관계를맺어야한다. 그리고그대들모두는하나의선행만을훈련해야한다. 그것은국가의노예가되는것을배우는것이다. 국가는그대의신이다!”

교회, 대학, 언론, 정당들도국가와훈육을찬양하였다. 그리고이찬양은아주성공적으로수행되어서, 혁명가들조차도이새로운우상을감히직시하지못한다.

현대의급진주의자는뻘속까지중앙집권주의자, 국가주의자그리고자코뱅주의자다. 그의발뒤꿈치를사회주의자들도따라가고있다. 15 세기말플로렌스인들은귀족들의전횡에서벗어나기위해국가독재의손에몸을의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현대사회주의자들은국가가창조한경제체제의추악함에서벗어나기위하여독재와국가를인정하는것보다더좋은방법을찾지못하고있다.

X

가사회에무거운손길을뻗지못하던그때에자유인과농노모든인간들이소유했던 바로그권리다.²³

이러한운명에처한것은노동자들만이아니었다. 상업조합의결성권을획득하기위해부르주아국가와치러야했던투쟁에대하여생각해보라. 국가는독점권을 확보하여중복들의이익을보장하고, 국고를가득채울수있을때에만조합결성권을 위임하였다. 국가가학술원, 대학, 교회를수단으로명령하는것과다르게말하고쓰거나심지어생각할권리를위한투쟁들! 다만읽고쓰는것만이라도배울권리를 위한투쟁! 국가가유보하고있는권리, 국가가사용하지않는권리, 심지어함께 즐거워할권리는? 재판관을선택하는것, 혹은중세에사람들은어떤재판관에게서어떤법에따라재판받기원하는지를스스로선택할수있었다는것은두말할것도 없다. 또한여전히우리앞에있는투쟁, 즉종교재판과동방의전제주의정신속에탄생한혐오스런형벌의책이, 형법이란이름으로알려진그책이소각되는날이오기 전에있을투쟁은두말할것도없다.

혹은조세시스템을보라. 이것은순수하게국가로부터지원한제로서, 국가가소유한강력한무기가되었다. 국가는유럽전역에서뿐만아니라신생국인미합중국에서도이무기를사용하고있다. 국가는이무기로국민대중을권력의휘하에 두고, 자신의동조자를이롭게하며, 지배하는소수를위해다수를파산시키고낯은 사회적불평등, 낡은카스트제도를유지하고자한다.

전쟁을생각해보라. 국가는전쟁없이만들어질수도존재할수도없다. 국가를 이루는한지역이이웃지역과대립하는이해를갖는것을허용하는순간전쟁은불가피하게된다. 우리를위협하는과거와미래의전쟁들에대해, 무역시장쟁탈을위한 전쟁들에대해, 식민제국을건설하기위한전쟁들에대해생각해보라. 전쟁에서승리하든지패배하든지에상관없이, 전쟁이어떠한노예상태를초래하는지우리모두는알고있다.

그러나내가얼마한모든악중에서가장나쁜것, 그것은학생시절과그이후의삶에서국가가우리에게제공하는교육이라할수있다. 국가의교육은우리의두뇌를 왜곡시킨다. 그결과우리안에자유개념자체가사라지고, 노예개념으로대체된다.

혁명가라고자처하는이들중에서많은사람들이아나키스트들을몹시미워하는것은안타까운일이다. 아나키즘의자유개념이자유에대한편협하고괴상한, 국가의정신이침투된교육을통해습득한개념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고해서그들

²³ 심지어는지금도, 바로 1903 년에, 보수당정부에서파업권은다시박탈되었다. 최고심판기관인영국의상원은다음과같은결정을내렸다. 파업이났을때, 노동조합이파업노동자를대체하기위해투입된노동자들을만류하였다는것이 - 힘으로위협하지않고, 보초가단지만류하기만해도 - 증명된다면, 노동자는고용주가임은손실을배상하여야한다. 유명한태프베일 (Taff Vale) 파업에서도노동조합은고용주들에게 5 만파운트를 - 50 만루블이상을 - 배상하였다고한다. 최근에도그와유사한일이발생하였다. 노동조합은 30 만루블을지불하겠다고약속한후에야소송을끝낼수있었다.

기를고려하여필요와능력에따라서토지를분배하였다. 지금까지도동유럽, 인도, 자바그리고다른지역에서수억의사람들이그러한체제에살고있다. 국가가광대한공간의시베리아로이주할권리를부여했을때, 우리시대의러시아농민들은그러한방식으로자리를잡았다.

우선토지의경작은공동으로이루어졌다. 지금까지도많은지역에서이관습은적어도공동체토지의일정한부분을경작할때유지되고있다. 숲의벌채, 삼림의개간, 요새혹은도시의건설, 습격시도피처가되는탐등모든것은국가의개입에성공적으로저항했던농촌공동체가있는곳에서, 수억의농민들이지금까지하고있는것처럼공동으로만들어졌다. 그러나요즘말로‘소비’는가족단위로이루어졌다. 각각의가족은자신의가족, 채소밭, 비축물자를소유했고, 따라서각가족은저축을하고, 축적된재산은유산으로물려줄수있었다. 모든사안에대해서공동체회의는최고의권력을가졌다. 지역의관습은법이었고, 남자와여자로구서오인모든가족대표들의공동집회는재판소, 특히민사와형사소송모두를위한유일한재판소였다. 모욕을당한공동체원은보통공동체회의가열리는장소에자신의칼을꽂기만하면되었다. 양편의증인들이선서한후모욕사실을확인하면, 공동체회의는관습에따라‘선고宣告’할의무가있었다.

이러한사회발전단계를보여주는것을모두서술하기는어렵다. 개별국가들이소수의이익을위해사용하는모든제도들, 비록소수의이익을위해왜곡되었지만우리의법에서발견되는모든법개념들, 모든재판의형식들은, 재판형식들이개인을보호하는한에는, 공동체관습에기초를두고있다. 예를들어, 우리가배심원제도를도입함으로써진보를이루었다고생각할때, 사실우리는야만인들의제도로, 지배계급에유리하도록변형된제도로돌아가는것일뿐이다. 로마법은관습법위에세워진상부구조에지나지않는다.

이와동시에농촌공동체들의자발적이고폭넓은연합덕분에그들의민족적동일성의의식도발전되었다.

농촌공동체는토지의공동소유와빈번한공동경작을토대로하고있으며, 관습법에기초한주권, 재판권, 입법권을소유했고, 구성원들의사회적요구대부분을충족시켰다.

그러나모든수요가충족된것은아니었다. 충족되어야할것들은여전히남아있었다. 그러나당시의시대정신은다음과같았다. 즉인간은새로운수요가발생하면피에의존하지않고, 새롭게발생한수요를충족시키기위해스스로일에착수하였으며, 이를위해다른사람들의동의에따라크고작은규모의, 많은혹은적은수의연합과단체를만들었다. 실제로그시대의사회는 (농촌공동체내에서처럼농촌공동체밖에서, 즉공동체들의연합에서도) 문자그대로서원한형제단들, 상호부조를위한연합들, 가족공동체들의그물로덮여있었다. 우리들은이런발전단계와이정신의발현을야만인들사이에서 - 이들연합은로마식으로, 더정확히말해비잔틴식으로수립된국가에아직굴복당하지않았다. - 발견할수있다. 예를들어, 카빌족은앞에서언급한기능을갖는농촌공동체를아주잘보존하고있다. 그러나인

간에게는 자신의 활동영역을 자기마을의 좁은 경계 너머로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속으로 모험을 찾아, 상인으로 편력을 시작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러저러한 기술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 떠난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상인들과 기술자들은 서로 다른 마을, 종족 혹은 공동체 연합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형제단’ 속에서 서로 연합한다. 먼 여행에서 상호 안전을 위해, 서로에게 비밀스런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그들에게 연합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한다. 그들은 형제단에서 약을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외에도,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소심한 사람도 내일 어떤 싸움에 말려들어 예외의 법규와 공동생활의 규범이 정한 경계를 침범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다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친 사람이나 모욕을 당한 사람에게 아주 큰 보상을 해야 한다. 가해자는 마을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여섯, 열 혹은 열두 명의 서약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형제단 가입이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정치에 대해 논하거나 심지어 어음 모를 꾸미고 싶은 욕구가, 이러저러한 도덕적 신념 혹은 관습을 확산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도 있다. 이웃 종족들과 동맹을 체결하고, 폭넓은 연합을 형성하고, 종족 사이에 법의 개념을 확산시켜야 한다. 이 모든 도덕적,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카빌족, 몽골족, 말레이족 등은 정부에 부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정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관습법을 따르며, 개인적 동기에 따라 행동한다. 그들은 어떤 일도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정부와 교회에 의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때문에 그들은 직접 연합한다. 그들은 형제단을, 정치적 종교적 결사를, 수공업자 조합을 결성한다. 중세 유럽인들은 이것을 길드라고 불렀고, 카빌족은 **소프**라고 부른다. 이 **소프**들은 마을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먼 사막과 낯선 도시들로 확장된다. 실제로 이들 연합에서는 형제 정신이 실천되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걸어야 할지라도, 소프의 구성원에 대한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형제단의 반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사람들은 ‘형제’ 살해자 취급을 당한다.

오늘날 우리가 카빌족, 몽골족, 말레이족 등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5 세기에서 12 세기 심지어 15 세기까지 유럽에서야만 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적 삶의 본질이기도 하다. 길드, 조합, 유니베르시타스⁷ 등의 이름으로 아주 다양한 목적을 위한 많은 연합들이 모든 곳에 존재했다. 상호 방어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상호 징벌을 위하여,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눈에는 눈’의 복수를 대체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낸 후에 가해자는 형제단 가입이 허용되었다), 수공업장에서 공동작업을 위하여, 역병이 돌때 상호 부조를 위하여, 영토를 방어하기 위하여, 증가하는 외부 세력에 공동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교역을 위하여, 선린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사상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연합은 황제

‘과학적’ 경제학자들은 옛길드의 이러한 보잘 것 없는 잔재들, 국가에의 해악압당하고 고살당한 이 조직들, 국가 행정기관의 무익한 부분들을 무지 때문에 중세 길드와 혼동하고 있다. (프랑스) 혁명이 산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파괴한 것은 길드도 노동조합도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기관의 무익하고 심지어 해로운 부분들이었다.

그러나 혁명은 산업에 대해, 즉 노동자에 대해 국가가 갖고 있던 그 권력을 정성들여 유지하였다.

무서운 테러리즘적 국민공회가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해 보기 바란다. (기억에 따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파업에 돌입함으로써 당신들은 동맹을 구성하고, 당신들은 국가 안의 국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파업에서 형선고를 내린다!”

이 답변에서 사람들은 보통 프랑스 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만을 본다. 그렇지만 그것에 다른, 더 깊은 뜻은 없는가? 그것은 국가와 모든 단체의 관계에 대한, 즉 1793 년 자코뱅주의에서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닌가?

“당신이 무엇인가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에 호소하라! 국가만이 백성들의 불만을 만족시킬 권리를 갖는다. 그러므로 자위(自衛)를 위해 연합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화국은 스스로를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 불렀다.

우리 시대의 사회주의자·자코뱅주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유의 잔혹한 논리를 갖고 국민공회는 국가의 비밀스런 의미를 표현하지 않았단 말인가?

국민공회의 답변에는 사회단체 즉, 어떤 목적을 갖든 모든 사적인 조직들과 국가의 모든 관계가 표현되어 있다.

러시아의 파업에 대해 말하자면, 파업은 지금도 국가에 대한 범죄로 생각된다.

독일의 경우에도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다. 빌헬름 황제는 최근에 광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청원하라! 그러나 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행동에 나서기를 감수한다면, 그대들은 내 군대의 총검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일은 프랑스에서도 거의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그렇다. 비밀결사, 배반자와 고용주에 대한 단검, 자동차에 설치한 폭약 (바로 1860 년에도), 베어링에 뿌린 모래 등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수단으로, 100 년간의 투쟁 후에야 비로소 영국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획득하는데 거의 성공했다. 국가는 하루 8 시간 노동에 관한 법률을 대가로 고용주와의 갈등에서 노동자들이 의무적인 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한다. 이러한 국가가 설치한 덫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를 곧 완전히 획득할 것이다.

100 년 이상의 치열한 투쟁! 고통이 큰 만큼,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감옥에서 죽어갔고, 호주로 유형을 떠났으며, 살해당하고, 교수형을 당했다! 이 모든 것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반복하자면, 그 권리는 국가

⁷ 역주 - universitas, 라틴어로 조합, 단체를 의미한다.

제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타협은 이루어졌으며 때로 필요한 경우 그들은 제 3 의심판자로 이웃 도시를 초대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유일한 심판자는 국가다. 인구 수백의 어떤 자그마한 도시의 자잘한 문제 때문에 왕의 행정부서와 의회 사무실에는 무수한 서류와 밀고장이 쌓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의회는 문자 그대로, 지방에서 올라온 수천 가지 자잘한 송사로 넘치게 되었다. 이 서류들을 분류하여 읽고 분석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말의 편자, 옷감의 염색, 청어 절이기, 나무통 제작 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는 수천 명의 관리들을 (이들 중 대부분은 돈에 매수되었다.) 필요로 하였다. 그래도 일의 양은 늘어가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곧 국가는 해외 무역에 손을 대었다. 국가는 해외 무역이 좋은 돈벌이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 그것을 장악하였다. 과거에도 도시들 사이에 운반된 옷감의 가격, 양모의 청결도 혹은 청어 운반 통의 용량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두 도시는 이 문제로 서로 문서를 교환하였다. 논쟁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 그들은 제 3 의 도시에도움을 청하고 제 3 의심판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옷감의 질과 가격 혹은 통의 용량에 대한 국제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방직 길드 협의회나 통제 직 길드 협의회가 소집되기도 하였다. 이제 국가가 중앙에서, 파리 혹은 런던에서 모든 다툼의 해결을 담당하게 되었다. 관리들을 수단으로 국가는 통의 용량, 옷감의 질, 씨줄과 날줄로 사용된 실의 수와 굵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명령을 통해 모든 수공업의 세세한 부분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알고 있다. 18 세기에 이 통제의 역압을 받아 산업은 죽어갔다. 국가의 보호 아래서 베네치아 셀리니 (Benvenuto Cellini) 의 예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그것은 죽고 말았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석공과 목공 길드의 건축은 어떻게 되었는가? 건축이 죽었다는 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배 시기의 일그러진 기념물들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가가 가한 타격으로부터 지금까지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은 죽고 말았다.

섬세한 아마포, 네덜란드 산양복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거의 전 유럽에서 철공들의 손은 귀하다고 할 수 없는 철을 재료로 우아한 장식물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철을 그토록 솜씨 있게 다루던 철공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중세에 정밀한 기계로 뉘른베르크의 명성을 창조했던 선반공, 시계공과 같은 장인들은 어디로 갔는가? 제임스 와트를 생각해 보라. 18 세기 말에 그는 자신의 증기 기관을 위해 정밀한 실린더를 제작할 사람을 찾느라고 30 년을 허비하였다. 그의 세계적 발명은 30 년 동안 조잡한 모델로 머물러 있었다. 모델에 따라 기계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산업에 개입한 결과였다. 국가가 한 일이란 것은 고작 노동자들을 경시하고 탄압하며,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도시에 빈곤의 씨앗을 뿌리고, 수백만 농촌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산업 노예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다.

와로마 교황의 계율에 따라 양육된 현대 유럽인들이 국가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존재하였다. 사회적인 분을 상실한 사람을 제외한다면, 당시에 자유인이든 농노든 자신의 공동체 외에 어떤 다른 연합이나 혹은 길드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전설 (사가 saga) 은 형제 단과 관련된 사건들을 노래한다. ‘형제 단원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가장 훌륭한 서사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교회 그리고 태동 중에 있던 왕권, 즉 되살아난 비잔틴 혹은 로마 법의 대변인들은 저주와 명령을 사용하여 형제 단들을 공격한다. (다행스럽게도 이 저주와 명령은 죽은 할아버지로부터 나온다.)

형제 자매의 연합은 인간의 경제적, 정신적 삶과 같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모든 곳에서 나타났다. 이들 연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시대 의역사 전체는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된다.

두 제도, 즉 농촌 공동체와 자유 형제 단은 로마, 기독교 혹은 국가의 영향을 받지 않던 시기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만족이 동시기의 유럽과 10 혹은 11 세기 유럽을 비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500 년 혹은 600 년 동안 인간은 성공적으로 처녀림을 정복하여 그곳에 정착하였다. 밭과 울타리로 둘러싸인 요새화된 도시의 보호를 받는 마을들이 나라를 덮었고, 마을들 사이에는 숲과 소택지를 지나는 길이나 있었다. 이들 마을에서 우리는 다양한 수공업의 태동을, 그리고 내적, 외적 평화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져 완벽한 그물망을 형성한 제도들을 발견한다. 전 시대와 달리, 이미이 시기에는 살인 혹은 마을 주민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족 중의 하나를 죽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았다. 왕의 친위대였던 대귀족과 귀족들은 과거의 규범을 유지하였으나 (이는 그들 사이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농민들 사이에는 가해 행위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고, 그 후에 평화가 회복되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가해자는 피해자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모든 다툼과 분쟁에는 중재 재판이 있었다. 중재 재판은 깊이 뿌리 내린 제도로서 일상의 습관이 되었다. 이와 달리 주교와 제후들은 모든 분쟁을 자신들이 혹은 자신들의 관리들이 다룰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공동체가 사회적 안정을 파괴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자신들이 징수하기를 원했다.

마침내 수백 개의 마을들은 강력한 연합을 결성한다. 이것은 미래 유럽 민족의 맹아로서, 서약을 통해 내적인 평화를 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자신들이 점유했던 토지를 공동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상호 방위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한 연합들은 몽골족, 터키-핀족, 말레이족들 사이에 지금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위에는 검은 점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들 연합들과 더불어 다른 연합들, 지배하는 소수의 연합이 발생한다. 후자의 연합은 자유로운 인간들을 농노로, 신민으로 바꾸기를 시도한다. 로마는 멸망했으나, 로마의 신화는 다시 살아났다. 다른 한편, 동방의 강력한 국가를 꿈꾸는 ‘기독교’는 태동하던 시민 그리고 군사 권력을 지지한다.

자신들이인간을지배해야한다는것을증명하기위해, 일반적으로지배자는인간을피에 굶주린 짐승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반대로 인간은 언제나 안정과 평화를 사랑한다. 때로 인간은 싸움을 거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피를 좋아하지 않으며, 언제나 전쟁 상태보다는 목축과 땅의 경작을 더 좋아한다. 야만족의 대이동이 약화되고, 떠돌이 무리가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자, 새로운 유랑인과 적을 방어하는 수고는 한 사람에게 위임된다. 위임받은 사람은 전쟁에 익숙한 모험가들 중에서 혹은 강도들 중에서 크지 않은 친위대를 직접 구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동물 사육이나 토지 경작에 종사한다.

그후 ‘보호자’는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다. 그는 가난한 친위대원에게 말과 무기를 주고 (당시 이런 것들은 매우 비쌌다.) 그렇게 해서 친위대원을 부유하게 만든다. 그는 권력의 첫 번째 매양을 키운다. 다른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으로 기능했던 설화를 잊기 시작한다. 과거에 있었던 결정들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가끔 결정에 대해 노래하거나 공동체의 큰 축제 때 사람들에게 영웅담을 이야기한다. 그때, 부모로부터 아들에게 전수된 기술처럼, 이시와 노래를 기억하는 가족들이 즉 ‘법’을 순수 형태로 보존하는 가족들이 조금씩 특화된다.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분규와 분쟁의 해결을 이들에게 부탁한다. 특히 두 마을 혹은 두 마을 연합이 자신들이 선택한 중재 재판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하다.

이들 가족 속에서 제후 권력 혹은 왕권이 싹튼다. 그 시대의 제도를 연구하면 할수록 무기의 힘보다 관습법에 대한 지식이 권력의 획득을 더 쉽게 만든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법범자를 ‘징벌’하려는 욕망 때문에, 무기에 직접 복종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에 복종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최초의 ‘권력 연합’이 창조된다. 이것은 공동 지배를 서로 보장하기 위한 최초의 공동체, 즉 마을 공동체에 적대적인 세력으로서 재판관들과 군지휘관들 사이의 연합이다. 이 두 관직은 한 인물로 결합된다. 그 인물은 재판선교를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들을 거느리며, 자신의 요새에서 군사력을 강화한다. 또한 그 시대의 부 (예를 들면 빵, 가축, 무기) 를 자기가 족 사이에 축적하고 보존하기 시작하여, 점차 이웃 농민들에 대한 지배를 주장한다. 그 시대의 지식인들 (주술사, 점성가, 성직자) 은 그를 지지하고 자신들 몫의 권력을 얻는다. 즉 그들은 마술사의 위협적인 능력에 칼의 힘을 결합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만든다.

이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 상술하기 위해서, 왜 점차 자유인들이 세속 혹은 종교 지배자를 위해 노동해야 하는 농노로 전락하게 되었는가를, 시골과 도시에 대한 지배가 어떤 방식으로 서서히 만들어졌는가를, 이 중 가하는 지배에 대하여 어떻게 농노들이 연합하고 봉기했는가를, 어떻게 이들이 견고한 성벽 앞에서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한 군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였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필요하다.

11세기 경 유럽에 오늘날 우리가 동방의 역사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과 비슷한 신정국가 (신정정치) 혹은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야만적 왕조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은 하루 아침에 일어날

“도시와 농촌에 공동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와 국가에 호소하라. 그러나 직접 공동으로 연합하고, 힘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16세기부터 이 문구는 전 유럽에 퍼지게 된다. 14세기 말에 발표된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의 명령에서, 우리는 “모든 조합, 형제단, 회의, 조직된 단체, 목수와 석공사이기에 이미 정해지거나 정해질 예정인 규약과 서약은 오늘부터 효력을 상실하며 폐지될 것이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도시의 반란과 다른 민중 운동들이 진압되고, 국가가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국가는 예외 없이 지금까지 수공업자들과 농민들을 연결하던, 모든 민중적 기관에 (길드, 형제단 등) 손을 대기로 결정하였다. 국가는 직접 기관들을 해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것은 영국에서 특히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들 기관의 변화 과정 각각을 기록한 문서들이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길드와 형제단을 점점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국가는 그들의 조합, 다음에는 축제, 직공장들을 제거하였다. 국가는 직공장을 대신하여 자신의 관리와 재판관을 임명하였다. 그 후 15세기 초 헨리 7세 때 길드의 재산을 직접, 가차 없이 몰수하였다. ‘위대한’ 개신교 왕의 후계자인 에드워드 6세는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완료하였다.

소롤드로저스 (Thorold Rogers) 가 올바르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전혀 정당하지 않은’, 말 그대로 백주의 강탈이었다. 소위 ‘과학적’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강탈을 경제 법칙의 영향 아래 발생한 길드의 ‘자연사’라고 말한다.

실제로 고유의 상거래와 자신만의 재판소와 자신만의 군대와 회계, 조직, 강력한 서약을 가진 길드 혹은 조합을 국가가 허용할 수 있을까? 국가주의 자들에게 이것은 ‘국가 속의 국가’인 것이다! 국가는 이들을 탄압해야 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보헤미아 모든 곳에서 국가는 탄압했으며, 그것들 중에서 단지 형식만을 남겨두었다. 즉, 국가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 유용한, 거대한 행정 기구의 부분을 이루는 형식만이 남게 되었다.

길드와 수공업자 조합들은 전에 삶을 구성하던 모든 것을 상실하고 왕의 관리들에게 종속되었으며, 지난 4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되지 못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길드와 조합이 18세이기는 산업 발전의 부담으로, 장애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인가? 국가가 그것들을 파괴했던 것이다.

실제로 국가는 길드의 삶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했던 독립성과 자주성을 파괴하였다. 또한 길드의 모든 부와 재산을 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는 이와 함께 길드의 모든 경제 활동 기능까지도 빼앗았다.

중세 도시의 내부에서 이해가 충돌하거나 두 길드가 상호 협약에 이르지 못하고, 논쟁의 해결을 위해 도시에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경우에, 양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거나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도시의 다른 모든 길드들이 이 문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인가?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트리코쉬의 기사를 보라. 그는 이 50 장에 달하는 서류의 자세한 목록을 모두 소개하였다.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것은 제 3 공화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5 내지 6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구체제의 ‘야만적’ 방법들이 아니다. 야만 시대에 국가의 통제는 유명무실했다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인가! 불필요한 2 만명의 관리들과 불필요한 수억 루블의 예산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서’와 일사분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정말 별것이야 아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놓인 훨씬 더 나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원리다.

한 마을의 농부들에게는 언제나 수천 가지 공동의 이해가 있다. 예를 들면, 농사, 이웃 사이의 이해, 지속적인 교제들이 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온갖 종류의 목적을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러한 단결을 좋아하지 않는다. 국가는 그들에게 학교, 성직자, 경찰과 재판관을 제공한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무엇인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들은 수립된 체계에 따라 교회와 국가에 호소해야 한다.

그렇게 1883년까지 프랑스에서 농민들이 어떤 것이든 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었다. 예를 들면 공동으로 비료를 구매하거나 들판을 건조시키기 위한 조합의 결성도 금지되었다. 공화국은 1883-1886년에야 비로소 농민들에게 이 권리를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온갖 제한과 예외 규정으로 누더기가 된 조합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전에 프랑스에서는 19 명 이상의 회원을 갖는 모든 단체들은 불법이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해 우리의 지성은 왜곡되었고, 그 결과 농업 조합이 그때 이후로 프랑스에서 급속도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나 농민들이 수백 년에 걸쳐 상실하게 된 조합 결성의 권리가 중세에 획득한 그들의 자연스런 재산이었으며, 이것은 자유인이든 농노든 모든 사람의, 논란의 여지 없는 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노예의 정신에 오염되어, 이 권리가 마치 ‘민주주의의 성과물들’ 중의 하나라고 상상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과 우리 국가의 편견들이 우리를 이 정도로 무지하게 만든 것이다!

IX

수 없었다. 어쨌든 이러한 작은 전제왕권과 신정 정치의 속성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제 더 발전하기만 하면 되었다.

‘야만적’ 정신은 스칸디나비아족, 작센족, 켈트족, 게르만족, 슬라브족들이 7-8 세기 동안 형제단과 길드의 자유로운 협약을 통해 빈곤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정신은 다행스럽게도 여전히 시골, 도시, 촌락에 살아 있었다. 사실 야만족은 예측되어, 군주를 위해 일하였다. 그러나 자유로운 자기주도와 자유로운 협약의 정신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그들의 연합들은 불멸할 것처럼 보였으며, 십자군 전쟁은 서유럽에서 연합의 각성과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12 세기에 유럽 전역에서도 시공 동체들은 혼연 일체가 되어 봉기를 시작한다. 이 봉기는 오래 전부터 연합의 정신에 의해 준비되고, 수공업 길드와 농촌 공동체의 연합이란 토대 위에서 발전되었다.

대부분의 공식 역사가가 이 봉기를 축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유럽을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였다. 이 봉기는 신정 군주국과 전제 군주국의 발전을 저지하였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빌론의 문명이 그랬던 것처럼, 신정 군주국과 전제 군주국에서 우리의 문명은 화려하고 공허한 위용을 뽐내다가 수세기 후에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었다. 새로운 삶의 한 장, 즉 자유로운 도시 공동체들의 장은 이 혁명에 의해 시작되었다.

IV

현대 역사가들은 로마 법의 정신으로 훈육되고, 로마를 모든 제도의 원천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다. 그들은 12 세기 공산 운동의 정신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개인의 권리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 인간들을 마을로, 도시로, 연합으로 자유롭게 결속시킴으로서 형성된 공동체를 과감하게 인정하는 것은 단일화와 중앙 집권화를 결정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단일화와 중앙 집권화는 고대 로마의 특징이었으며, 이들은 현대 공식 학문의 역사적 표상들에 스며들어 있다.

12 세기의 봉기를 어떤 탁월한 개인이나, 어떤 중앙 집권적 제도의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봉기는 친족 관계와 농촌 공동체와 같이 인류의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것은 어떤 한 지역에 혹은 한 지방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인류 발전 단계에 속한다.

여기에 공식 학문이 이 운동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19 세기 초 프랑스에서 이 시기를 실제로 이해하고 기록한 티에리 (J.Thierry) 와 시스몽디

(J.Sismondi) 의뒤를잇는학자가오늘날까지없기때문이다. 지금은단지뤼세르(A.Luchaire) 만이, 그것도아주조심스럽게, 메로빙거왕조와코뮌시대에대한 위대한역사가티에리가제시한길을따르고있다. 이런이유로독일에서도이시기에대한연구와그정신에대한호호한이해는지금에야비로소향상되고있다. 영국에서이세기에대한진실한평가는역사가들에게서가아니라, 시인인윌리엄모리스(W.Morris) 에게서만찾아볼수있다. 예외는그린(J.Green) 인데, 그는생애 마지막에서야비로소그것을이해하기시작하였다. 알려진바와같이로마법의영향이크지않은러시아에서는벨라예프, 코스토마로프, 세르게예비치와몇몇다른 사람들이민회시대의정신을탁월하게이해하였다.

중세의공동체는한편으로농촌공동체로, 다른한편으로는지역적경계를초월하여존재했던많은조합, 길드들로구성되었다. 도시의성벽과망루의보호아래이 공동체는이두종류의조합들이결합함으로써형성되었다.

많은지역에서공동체는완만한성장의결과로서나타났다. 그것은서유럽의모든지역에서처럼다른지역에서도혁명의결과였다. 이러저러한지역의거주자들이 자신들의성벽안에서충분히안전하다고생각할때, 그들은‘공동서약’을행한다. 구성원들은모욕과싸움혹은상해와관련된과거의일들을잊기로맹세하고, 앞으로분쟁시에자신들이선정한길드혹은도시조합외에는어떤다른판관에게도의뢰하지않겠다고맹세하였다.

이러한습관은모든수공업조합에서, 모든공제조합에서, 모든가부장적공동체에서오래전부터존재하였다. 주교혹은제후들이농촌공동체에자신의재판기관을도입하고강제로그것을관철시키기전까지, 이것은농촌공동체에서도마찬가지였다. 이제도시의구성원이된모든자유농민마을들과교구들은도시에만들어진형제단과길드들과함께‘우정(amitas)’을수립하고, 자신들의재판관을선출하여, 이집단들사이에생긴영원한연합에충성하기로맹세하였다.

즉시현장이작성되고승인을받게되었다. 때로현장의모델을구하기위하여이웃도시로사람들을파견하기도하였다.(지금우리는수백종류의현장들을알고있다.) 이렇게하여새공동체가창조되었다. 그이전까지주교혹은제후들은공동체구성원들사이에서재판을하거나, 종종그들의지배자노릇을하였다. 그러나그들은이제완성되고있는사실을인정하거나무기를두고이젊은연합에대항하여싸워야했다. 다른제후들을지배하기위해애쓰지만, 재산은없었던왕혹은제후가돈을대가로현장을‘수여하는’경우도드물지않았다. 그는공동체에자신의재판관을지명하기를거부하는대신우월한위치를차지하였으며, 여러도시의수호자로서다른봉건영주들앞에서큰중요성을얻었다. 그러나이것은절대일반적규칙은아니었다. 즉수백개의자유도시들은자신들의성벽과창의보호아래고유의의지외에는어떤다른법도없이살았다.

한세기가지나는동안에운동은모방을통해일사분란하게전유럽에확대되었다. 운동은스코틀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로퍼졌다. 지금우리가현장과프랑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텔드쿨랑지[Fustel de Coulanges] 의충실한제자인시봄[F.Seeböhm] 과같은학자) 지금도존재한다.

그러한방법을우리는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볼수있다. 공동체소유였던토지의사유화는이렇게 19 세기중반즈음에완성된다. 농민들은자신들의공동체토지에서보잘것없는부분만을소유하게되고말았다! 바로이것이지주, 성직자, 군인, 재판관들사이의상호보장연합이, 즉국가가농민에게행한것이다. 국가는농민에게서빈곤과경제적노예상태로부터빠져나올마지막수단을빼앗고말았다.

이제다음과같이물을수있다. 그런식으로공동체토지의강탈을조직하고은폐하면서, 국가가지방삶의조직인공동체의존재를허용할수있었을까?

명백히그렇지않다.

자신의환경속에서시민들이국가의몇몇의무를갖는조합을조직하도록허용하다면, 그것의국가의원칙과모순된다. 국가는매개하는단체없이, 모든신민의직접적이며개인적인복종을요구한다. 국가는노예상태에서의평등을요구한다. 국가는‘국가속의국가’를걸디지못한다.

때문에 16 세기에, 국가가수립되기시작하자마자, 국가는도시의시민들과농촌의농민들사이의관계를끊는작업에착수하였다. 국가가독립은절대아니지만가끔도시관청의자치를미약하나마허용했다면, 이것은오직국가의재정과관련된목적을위해, 국가의일반부채를대폭줄이기위해서였다. 혹은민중을희생시켜도시재산가들에게부자가될기회를제공하기위해서였다. 이것은최근까지영국에서일어났으며, 지금도영국의제도와관습에반영되고있다. 즉최근까지소수의부유한상인들이모든도시경제를장악하고있다.

이것은당연하다. 지방의삶은관습법으로부터발전한반면, 로마의법은권력의중앙집권화로이어지기때문이다. 둘의공존은불가능하다. 둘중하나는사라져야한다.

예를들어, 이것은왜프랑스통치하의알제리에서, 카빌의 **젼마** 혹은농촌공동체가토지에대한소송을진행할때면, 공동체회원들각자가개별적으로법원에소송을제기하는가에대한이유다. 왜냐하면법정은젼마의집단적인하나의소송보다는, 오히려 50 혹은 200 명의개별적인소송을다루기를원하기때문이다. 나폴레옹법전이라알려진국민공회의자코뱅법령은관습법을인정하지않는다. 즉이법령을위해존재하는것은로마법혹은나아가비잔틴법뿐이기때문이다.

바로이것이프랑스어딘가큰길가의나무가바람에쓰러졌을때혹은어떤공동체의한작은지역을스스로수리하는대신농민이 2 혹은 3 프랑을주고석공에게일을맡기길원할때, 그가책상에앉아내무부와국가출납국의 15 명이나되는관리에게편지를써야하는이유이다. 이거대한잡일은 50 장이상의서류를교환해야한다. 그리고그때서야나무를팔수있고, 농부는공동체금고에 2-3 프랑을낼수있는허가를취득할수있다.

다행히다섯번째해‘프레리알’²¹ 2 일이법은 3 년만에폐기되었다. 그러나동시에공동체들도파괴되었고, 이를대신하여‘지방의회’가설립되었다. 국가논의회를손쉽게자신들의관리로채울수있었다. 이러한상황은농촌공동체가재건되는 1801 년까지지속되었다. 그러나대신에 36,000 개의프랑스공동체에서장과조합장을임명할권한을정부스스로가 갖는법안을만들었다! 이후에야 1830 년혁명까지계속되었고, 이후에야 1784 년의법이부활했다. 두대책사이의기간 동안공동체토지는 1813 년국가에의해몰수당했고, 그후 3 년동안약탈을당했다. 남은토지들은 1816 년에야반환되었다.

그러나이것으로끝나지않았다. 모든새로운정부는지지를보여준사람들에대한포상비용의재원으로공동체토지를생각했다.

1830 년이후 3 회에걸쳐, 처음은 1837 년, 마지막은나폴레옹 3 세가공동체의삼림과목장을농가별로분배할것을 **명령하는법안**이통과되었다. 세번모두 정부는농민들의저항을받고서야이법안을취소하였다. 그럼에도나폴레옹 3 세는이것을교묘히이용하여, 자신의총신들을위해몇몇거대한장원을은밀하게탈취하였다.

이것이바로프랑스에서공동체토지소유가‘자연스러운죽음’에이르게만든사실과‘경제법칙’이었다. 그렇다면전쟁터에서수십만군인의죽음도역시‘자연스러운죽음’이란말인가?

프랑스에서일어난것은벨기에,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일어났다. 간단히말해, 슬라브국가들을제외한모든유럽에서일어났다. 무엇보다이상한것은모든서유럽국가에서공동체약탈의시기가일치한다는것이다. 방법만이달랐다. 영국에서는일반적인수단을도입하지않고, 수천개의개별적인인클로저법령²²을제정하는방식을택했다. 이법령에따라귀족과자본가로구성된의회는개별적인사안마다토지의몰수를승인함으로써, 지주들이돌려싼토지를지주들이 소유하는권한을부여하였다. 영국에서는지금까지도고랑의흔적들이발견된다. 이고랑들은공동체토지를구역으로, 어느정도는가족단위로구분하기위해사용되었다. 우리는마셜 (A.Marshall) 의저서에서 19 세기초까지존재했던이런종류의토지소유에대한분명한묘사를찾아볼수있다. 그럼에도영국에는농노제도를제외하면농촌공동체가절대로존재하지않았다고주장하는학자들은 (뫼스

²¹ 역주 - Prarial(프레리알: 목장의달, 풀의달). 1793-1805 년사이에사용되었던프랑스혁명의 9 번째달로, 5 월 20/21-6 월 18/19 일에해당한다. 본문의“다섯번째해프레리알 2 일”은 1797 년 5 월 21/22 일이다.

²² 역주 - 이것은소위영국의인클로저 (enclosure) 운동과관련된법령으로, 공동이용이가능한토지에담이나울타리등의경계선을쳐서남의이용을막고사유지로할수있게하였다. 이결과농민들은지주에게땅을빼앗기고, 농업노동자로전락하고후에공업노동자가되었다. 모직물공업이발달함에따라강제로농토를목장으로전환시켜양모의생산을증진시키려했던이정책은농촌을몰락시켰고, 농민을값싼노동자로전락시켜자본주의발전을촉진시켰다.

아일랜드, 스칸디나비아혹은스페인의자유도시들의내적인구조를비교하면, 동일한종류의사회계약의보호막아래서성장한공화국들과현장들의유사성에놀라지않을수있다. 법앞에서노예가되는것외에, 제도의단일성을획득할수있는다른방법을알지못하는모든로마의송배자들과헤겔주의자들에게이것은얼마나놀라운교훈인가!

대서양에서불가까지그리고노르웨이에서이탈리아까지전유럽은비슷한자유도시들도뒤덮었다. 그들중에서플로렌스, 베네치아혹은뉘른베르크와같은일부도시들은인구가많은중심도시가되었고, 다른도시들은수백가구로구성된크지않은도시가되었다. 그러나이들도시들도보다더번창하는다른도시들과동등한대접을받았다.

생명과힘으로충만한도시의발전은물론모든곳에서같은방식으로진행되지는않았다. 지리적상황, 대외무역거래의특징, 극복해야했던장애물때문에각각의공동체는고유한역사를갖게되었다. 그러나근본에는동일한원리가놓여있었다. 러시아의프스코프처럼네덜란드의브뤼지도, 삼백여명의거주자가사는스코틀랜드의작은도시처럼여러섬들을가진번성한베네치아에서도, 북프랑스혹은폴란드의도시처럼아름다운플로렌시아에서도모두우정 (amilas), 즉농촌공동체와연합된길드연맹을구성하였다. 그들의내적인조직의전체적특징은어디서나동일했다.

도시인구가성장함에따라도시의벽은확장되었다. 더높은새망루들이추가되었고, 각각의망루들을중심으로도시의구역과길드가자리잡았으며, 망루는고유의특수한성격을갖게되었다. 도시는보통몇개의구역혹은구간으로나뉘었다. 넷, 다섯혹은여섯개의구역혹은구간은도시중심의내성內城으로부터성벽을향해펼쳐진길들로구분되었다. 이구역과구간들에각각의독특한수공업혹은작업장들이자리를잡았다. 즉새로운수공업혹은새로운작업장들은마을을형성하고, 이것은시간이흐르면서도시와도시성벽의경계속으로들어왔다.

각각의거리와교구는옛농촌공동체에해당하는토지단위였다. 이들은자신만의거리의장혹은교구장, 거리민회民會, 법정, 선출된성직자, 수비대, 깃발과인장 (국가의독립성의상징) 을갖는다. 다른거리들그리고교구들과연합을결성하는경우에도이들은독립성을유지한다.⁸

거리혹은교구와주로일치하거나거리의일치했던직업단위는길드, 즉수공업조합이었다. 이조합도똑같이자신들이성직자, 거리, 민회, 재판소를보유한다. 조합은고유의금융기관, 군대, 깃발을갖는다. 조합은고유의인장을소유하고완전한독립성을갖는다. 전쟁이발생할때, 길드가필요하다고인정하면, 길드의수비대는다른길드의수비대와나란히출정한다. 이에길드의깃발은도시의큰깃발과나란히높이게양된다.

⁸ 러시아와관련된사항은벨라예프의『러시아역사이야기』를보라.

도시는이들구역, 거리, 교구, 그리고길드들의연합이된다. 도시는중앙민회에모든주민들의전체회의, 자신의중앙시청, 선발된재판관들과고유의깃발을갖고, 이것발주위에모든길드와거리의깃발들이집결한다. 도시는다른도시들과의협상에임하고, 전권을갖는단위로서필요한누구와도동맹을맺고, 원하는누구와도민족적인그리고국제적인연합을체결한다. 예를들어, 도버 (Dover) 시근처에위치한영국의싱크포츠⁹는해협의반대쪽에있는프랑스와네덜란드의항구도시들과연합을형성한다. 바로이시기에자발적인동의에따라협약의망이만들어지고, 이것은훗날국제법이란이름으로알려지게되었다. 모든도시의공통의건이이협약들을보호하였으며, 오늘날국제법이준수되는것보다더잘준수되었다.

어떤복잡한분규를해결할수없는경우에, 도시는자주이웃도시의도움을받았다. 그시대의정신, 즉권력보다는오히려제 3 자에게도움을청하려는노력은다투는두공동체가제 3 자에게의뢰하는행위속에지속적으로나타났다.

우리는수공업조합들에서도그러한것을발견할수있다. 그들은도시와는완전히독립적으로상거래를행하고, 어떤민족적구분에구애받지않고협약의체결에임한다. 그리고우리가지금국제노동자회의에대해서자부심을갖지만, 무지한우리는수공업자와심지어도제들의국제적대회가 15 세기에소집되었다는사실을완전히잊고있다.

외부의공격이있을때, 중세도시는스스로방어하거나, 매년한두사람을자체군대의지휘관으로임명하여주변봉건영주들과혹독한전쟁을수행한다. 혹은도시는제후나공작을특별‘군사지휘관’으로고용한다. 그는 1 년단위로고용되며, 도시는필요한경우그를해임할권리를갖는다. 친위대를유지하기위해도시는법정징수금과벌금을받아모은돈을그에게지불한다. 그러나그는도시의일에개입할권리를갖지않는다. 때로도시가너무약해서주변의봉건영주들로부터완전히자유롭지못할때, 도시는, 어느정고정적인‘군사지휘관’에게하듯이, 주교, 제후혹은다른가문에 - 이탈리아의구엘피 (Guelfi) 혹은기벨리니 (Ghibellini), 러시아의류릭가문, 라트비아의울게르드가문등 - 도움을청한다. 이때도시는주교혹은제후의권력이성안에살고있는친위대를벗어나지못하게철저히감시한다. 심지어주교, 제후는허가없이도시로들어가는것이금지된다. 알려진것처럼, 지금까지도영국왕은시장의허가없이런던으로들어갈수없다.

중세도시의경제적인면에대해자세히언급하고싶은생각이간절하다. 그러나그것은너무나다양해서신뢰할만한개념을전달하려면말이너무길어질것같다. 국내의상거래는개별수공업자가아니라언제나길드에의해서이루어졌고, 가격은상호협약에의해서결정되었음을지적하는것으로충분할것이다. 처음에대외무역은 **전적으로** 도시들에의해서만이루어졌다. 예를들면, 대노브고로드, 제네바등이대외무역을이끌었다. 나중에야상인길드가독점적으로무역을했고, 더

⁹ 역주 - Cinque Ports. 영국남해안의특별항구. 원래는 5 개항이었으나후에 2 개항이추가됨.

다음한세기동안적어도전체공동체토지의절반이국가의비호를받는귀족과성직자들의소유가되었다. 그럼에도공동체는 1784 년까지존속하였다. 공동체구성원들은여전히느릅나무아래어딘가에서집회를계속하였고, 토지를분배했으며, 세금을징하였다. 이에대한기록은바보 (A. Babeau) 에게서찾아볼수있다. 그러나튀르고 (A. Turgot) 는공동체의민회가‘지나치게소란스럽다.’고생각하여, 자신이통치하는지역에서민회를폐지해버렸다. 그대신에그는재산소유한주민중에서선발하여회의를구성하였다. 1787 년, 혁명전야에국가는이방법을전프랑스에확대하였다. 농촌공동체는파괴되었고, 공동체업무관리는부유한자본가와농민들로구성된소수조합의수중으로넘어갔다. 제정의회는 1789 년 12 월서둘러법을통과시켰고, 그이후귀족의자리를차지한자본가들은공동체토지중나머지부분을강탈하기시작했다. 일련의농민반란이있은후에야 1792 년국민공회는¹⁹ 동프랑스에서봉기한농민들이이룩한것을승인하였다. 즉국민공회는농민들에게공동체의토지를돌려주고명령하였다. 그러나이것은농민들이반란으로땅을되찾았을때에만, 농민들이스스로이일을실현한곳에서만가능하였다.

알려진것처럼, 모든혁명적법안들의운명은그러했다. 즉그것이완성된사실이되었을때에만, 혁명적법안들은존재할수있다.

그럼에도국민공회는이법안에자본가의독주를입시킬기회를놓치지않았다. 법안에따르면, 귀족으로부터몰수한토지는‘노동적인시민’에게, 즉농촌자본가들에게공평하게분배되어야했다. 이렇게간단하게국민공회는‘노동적인시민’, 즉누구보다공동체토지의분배가절실했던가난한농민대중들의토지소유권을박탈했다. 다행히이에대한답으로농민들은 1793 년다시폭동을일으켰다. 그때서야국민공회는모든농민들사이에토지를분배한다는새로운법안을만들었다. 그러나이명령은결코실행에옮겨지지않았으며공동체토지의새로운장악을위한구실로사용되었다.

이들권력자들이표현하는것처럼이모든대책들은공동체들을‘자연사’시키기위해충분한것처럼보였다. 그러나공동체들의존재는계속되었다. 1794 년 8 월 24 일당시권력을갖고있던반동세력은공동체에새로운타격을주었다. 국가는모든공동체토지를몰수하여그것으로국가부채를충당하기위한예비기금을만들었다. 무엇보다도토지를농민들에게, 자코뱅당원의처형으로죽테르미도르의반동²⁰으로끝난자본주의혁명의경쟁자들에게경매로팔기시작했다.

¹⁹ 역주 - convention nationale. 프랑스제 1 공화국의최고입법·행정기관 (1792-1795).

²⁰ 역주 - 프랑스혁명정부를무너뜨린테르미도르 (혁명력의 11 월) 9 일의쿠데타사건 (1794.07.27.).

도시의독립을파괴하는것, 상인길드와수공업길드를약탈하는것, 도시의대외무역을장악하고파괴하는것, 길드의내부행정권을장악하고국내상업과수공업을모든세세한사항에이르기까지관리의무리에게종속시키는것, 이렇게하여산업과예술을쓰러뜨리는것, 지역예비군을파괴하는것, 강자에게유리한세금으로약자들을억압하고전쟁으로국가를유린하는것. 16-17 세기에태동하던국가한역할은바로그런것들이었다.

같은일이농촌의농민들사이에도일어났다. 충분히강해졌다고느끼자즉시국가는서둘러농촌공동체를파괴하였고, 국가의전횡에완전히노출된농민들을유린하였으며, 공동체토지를약탈하였다.

국가로부터급료를받는역사가, 정치가, 경제학자들은농업공동체가농업발전을방해하는낡은토지소유형식이며, 농업공동체는자연스런경제발전의영향을받아사라질운명에처한것이라고언제나우리를가르쳤다. 정치가와자본주의경제가들은지금까지도계속해서이렇게말하고있으며, 심지어학교에서배운허무맹랑한이야기를반복하는혁명가와사회주의자들도있다. 이들은스스로를‘과학적’사회주의자라고부르기도한다.

그러나이것은학문에서만만날수있는몹시불쾌한거짓일뿐이다. 진실을알기원하는사람이면누구에게나명백하게증명할수있는많은자료가역사에축적되어있다. 프랑스에대해서는달로즈(V.Dalloz)를읽는것만으로도충분하다. 무엇보다진실은국가가농촌공동체의모든독립성과사법권, 입법권그리고행정권을빼앗았다는것이다. 다음에토지는국가의비호를받는부자들에게의해강탈당했고, 혹은국가에몰수당하였다.

이런강도행위는프랑스에서 16 세기에시작되었고, 17 세기에도오랫동안계속되었다. 1659 년에도여전히국가는공동체를자신의보호령으로만들었다. 이때부터공동체토지의강탈이시작되었다는것을이해하기위해서는루이 14 세의명령서를읽는것만으로충분하다. “사람들은멋대로토지를점유하였다¹⁸ ... 그들은강탈을정당화하기위해... 토지를나누어가졌고, 부채를날조하여공동체에갇게만들었다.”라고왕은명령서에서말했다. 그리고 2 년후, 그는모든수입을몰수하여자기것으로만들었다. 이것이바로과학의언어로‘자연사’라고하는것이다.

¹⁸ 역주 - 루이 14 세는농촌공동체가토지를공동으로소유하고경작한것을“멋대로토지를점유하였다.”고비난하고있으며, 이러한비난을구실로농촌공동체의수입을강탈했다.

후에는개인들이이끌었다. 일요일과수요일의점심식사후에는(이시간은목욕을위한것이였다.) 누구도일하지않았다. 도시는밀, 석탄등과같은필수품의구매를담당하였고, 자신만의가격으로자기주민들에게그것을공급하였다. 스위스에서 도시는 19 세기중반까지국물구매권한을가졌다.

우리가수집할수있는많은역사적인자료들을근거로말할수있는것은, 이시기를전후한어떤시대에도중세도시들이누렸던, 모든사람에게보장된그러한행복을인류는경험한적이없다는것이다. 중세도시는오늘날의빈곤, 미래에대한불확신, 과도한노동을전혀알지못했다.

V

단순한것에서부터복잡한것을조직하는자유, 생산과국내상거래는수공업자조합들이담당하고대외무역과주요생필품의구매는도시 스스로가행하던관습, 이러한것들덕분에중세도시들은처음 200 년동안모든거주자를위한행복, 부유, 높은발전, 교육의중심이되었다.

영국의로저스(Thorold Rogers)와많은독일연구가들은소비재가격대비임금의가치를파악할수있는자료들을조사하였다. 이들의조사에따르면당시의수공업자들과심지어단순일급노동자들의노동임금은우리시대가장숙련된노동자들의노동임금보다높았다. 옥스퍼드대학과영국의몇몇영지그리고몇몇독일과스위스도시들의회계장부가이것을명백하게증명한다.

다른한편, 예술작품, 그시대노동자들의참된예술품이라할만한시청혹은사원뿐만아니라, 가장단순한가재도구인자수, 촛대, 찻잔혹은항아리를치장했던장식의양을보라. 그러면여러분은그시대의노동자는우리시대의조급증, 성급함, 피로감을몰랐다는것을알게될것이다. 그는서두르지않고급속을불리고, 소상을만들며, 옷감을짜고자수를놓았다. 오늘날에는곡소수의노동자들, 즉예술가들만이이렇게일할수있다. 교구, 길드그리고전도시속에속한교회와공공건물들을장식하기위해무료로행해진작업들을들여다본다면, 즉이건물들에바친그림, 조각, 철혹은은으로만든장식혹은목공과석공의자잘한물건들과예술작품들과같은헌물들을들여다본다면, 우리들은발명정신의흔적을, 새로운것에대한탐구를, 모든노동에영감을주었던자유정신을, 길드에서발전된형제적연대의정신을발견할것이다. 사람들은수공업의실질적필요때문만이아니라, 형제애와사회성

의관계로결합되었던것이다. 예를들어, 길드의규칙에따르면, 언제나두‘형제’가 병든‘형제’의침대에함께있어야했다. 그러나이것은전염병이나역병이창궐할때면상당한자기희생을요구하는것이였다. 사망시에길드는죽은형제혹은자매의 장례와관련된모든일과비용을담당하고, 그의시체를매장하여부인과자녀들을 돌보는것을의무라생각했다.

‘12세기봉건주의의숲속에생긴오아시스’는현대도시의주민들위에드리워진극단적인곤, 억압, 미래에대한불확실을전혀알지못했다.

자유로운협약과자유로운자기주도의토대위에서성장한정치적자유보호를받으며, 이들도시들에서새로운문명이빠른속도로생기고발전하였다. 그토록 빠른속도는전후의어떤시기에도찾아볼수없다.

현대의모든산업은이들도시에서비롯되었다. 300년동안이곳에서수공업과 예술은매우높은수준의완전성을획득하였다. 때문에우리의세기는생산속도에서만이시대를능가할뿐질적으로는종종그에미치지못하고, 예술적세공에서는전혀미치지못한다. 예술을소생시키려는우리의모든노력에도불구하고, 우리들은미술의아름다움에서라파엘로와, 힘과과감성에서미켈란젤로와, 과학과예술에서레오나르도다빈치와, 시와언어의아름다움에서단테와혹은건축에서리옹, 랭스(Reims), 쾰른의성당건축가와 - 빅토르위고에따르면이성당의‘건축가’들은민중들자신이었다. - 비교될수있단말인가? 플로렌스와베니스, 브레멘과프라하의시청, 뉘른베르크와피사의탑과같은수없이많은아름다움의보고를어디서찾을수있단말인가? 이모든예술의기념비들은자유로운도시시대의창조물이다.

이문명이가져온모든것을여러분이일별하기원한다면, 베니스의성마르코성당의둥근지붕과노르만족의줄렬한아치들을비교해보라. 혹은라파엘의그림들과바이외¹⁰의단순소박한자수와양탄자들을, 뉘른베르크의수학적물리학적악기와시계들과전시대의모래시계들을비교해보라. 또는단테의낭랑한언어와 10세기야만족의라틴어를비교해보라. 이두시대사이에서완전새로운세계가자라났다.

또하나의영광된시대인고대그리스도시국가의시대를제외하면, 인류가이시대처럼빠른속도로발전한적은없었다. 2, 3세기만에인간이그렇게심오한변화를겪은적이없었고, 자연력에대한지배력을그정도수준까지발전시킨적이없었다.

당신은우리가자랑하는현대문명의성공들을생각할수도있겠다. 그러나여전히현대문명은중세의자유도시들사이에서자라난문명의자식일뿐이다. 현대과학을창조한나침반, 시계, 인쇄기같은많은위대한발명들, 새로운세계의발견, 화약, 중력의법칙, 증기기관을만들수있게한기압의법칙, 화학이론, 로저베이컨

¹⁰ 역주 - 바이외 (Gayeux). 프랑스바스노르망디주의칼바도스테프르트망 (Department) 에 있는도시로장식품의생산으로유명하다.

가안에두는것을용인하려하지않는다. 국가는 **신민臣民**만을인정한다. 국가와 그의지주인교회만이개별적인개인들사이의연결고리가되는절대적권리를갖게되었다. 분명한것은, 국가는시민들사이의직접적관계에기초한도시를필연적으로파괴하려노력한다는것이다. 국가는 **필수적으로** 그러한도시에서모든내적관계를파괴하고, 도시자체를파괴하며, 도시들사이의모든관계를파괴해야했다. 연방의원리대신에국가는복종과규율을수립해야했다. 이것이국가의가장기본적인원리다. 이것이없다면국가는 **국가**이기를중단하고연방으로변화된다.

그래서학살과전쟁의세기인 16 세기는삶과죽음의투쟁으로, 태동하던국가도시들과그연방들에게선포한전쟁으로완전히소멸되었다. 도시들은포위되어점령되고약탈당했다. 주민들은학살당하고, 유형에처해졌다. 국가는모든전선에서승리했으며, 이승리의결과는다음과같다.

15 세기에유럽은부유한도시들로덮여있었다. 도시의수공업자, 석공, 방직공, 조각가들은예술의기적을만들어냈다. 그들의대학은과학의기초를놓았다. 그들의무역상들은대륙을횡단하였고, 배는바다와강을종횡으로항해했다.

2 백년이지나는동안이들중에무엇이남았는가? 5 만 ~10 만의주민을가진도시들은즉, 오늘날가장잘설비된수도と比較할때각각의주민당더많은학교와 병원침대가있었던플로렌스같은도시들은보잘것없는장소로변하고말았다. 주민들은학살당하거나쫓겨났다. 도시의부는국가혹은교회의소유가되었다. 산업은관리들의조악한지원아래경쟁에빠지고, 상업은몰락하였다. 도시들을이어주던도로는 17 세기에는통행이불가능하게되고말았다.

국가는모든곳에전쟁의씨앗을뿌리고, 전쟁은유럽을황폐화시켰으며, 국가가직접파괴하지못했던도시를파괴했다.

그렇다면, 농촌은국가적중앙집권화로부터이득을보았을까? 절대로그렇지 않다! 스코틀랜드, 토스카나, 독일농촌의삶에대해역사가들이말하는것을보고, 이것과 1648 년영국, 태양왕루이 14 세시기의프랑스, 독일과이탈리아농촌의빈곤, 한마디로국가가지배한백년후에발생한모든농촌의빈곤에대해서술을비교해보라.

모두가한목소리로인정하고지적하는빈곤은도처에있었다. 농노제도가폐지된곳에서그것은여러다른형태로복원되었다. 그러나아직폐지되지않은곳에서그것은국가의비호아래고대노예제의모든특징을갖는잔혹한제도로, 심지어이보다더나쁜제도로변화되었다.

국가의주된관심은우선자유도시를다음에는농촌공동체를파괴하고, 농민들사이에존재하는모든관계를끊고, 약탈한토지를부자에게넘겨주고, 농민들을관리, 성직자, 지주들의권력에예속시키는것이였다. 도대체국가로부터어떤다른것을기대할수있단말인가?

수대의 도움으로 수년 동안 십만명 이상의 농부들을 살해한 후에, 교황과 개신교의 지원을 받아 이 반란에 중지를 찍을 수 있었다. 루터는 교황보다도 더 많은 농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재세례파 운동으로부터 탄생한 루터의 종교개혁은 초기에 민중 운동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민중을 살육하고 민중 운동을 탄압하는 데 전력을 다해 도움을 주었다. 이 거대한 지적 흐름의 생존자들은 '모라비아 형제단'으로 몸을 피했으나, 이 형제단도 교회와 국가에 의해 탄압을 받았다. 무사히 살아남은 소규모 집단들이 구조되어 일부는 남동러시아로, 일부는 독일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어떤 봉사도 거부하고 있다.

이때 이후로 국가의 존재는 보장받게 되었다. 법률가, 성직자, 지주 그리고 군인은 왕권 주위에서 우호적인 연맹을 결성하고, 이제 다시 파괴적인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기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추적해왔는가! 학교에서 우리 모두는, 국가가 중세 사회의 폐허 위에 민족적 연합을 창조하여 인류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그러한 연합은 도시들의 경쟁 때문에 전에는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배웠다. 우리 모두는 학창 시절에 그렇게 배웠고, 나이가 들어서도 거의 모두 이것을 믿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중세 도시들은 모든 경쟁에도 불구하고 400 년 동안 이들 연합을 자발적 협약에 기초한 연방으로 결속하려고 했으며, 그들은 이 점에서 완전하게 성공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롬바르디아 (Lombardia) 동맹은 북 이탈리아의 모든 도시들을 포괄하였고, 제네바와 베네치아에서 고유의 재정을 소유했다. 토스카나 (Toscana) 동맹, 60 개의 도시가 참여한 라인 (Rhein) 동맹과 같은 다른 연방들, 베스트팔렌, 보헤미아, 세르비아, 폴란드, 러시아 도시들의 연방이 전 유럽을 덮었다. 상업을 위한 한자 (Hansa) 동맹은 당시에 스칸디나비아, 북독일, 폴란드, 발틱해 주변의 러시아 도시들을 포함하였다. 자발적 연합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의 실천적 실현도 이곳에 존재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연합의 살아있는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스위스를 보자. 그곳에서의 연합은 무엇보다도 프랑스란 (Lan) 지방에 있는 것과 유사한 농촌 공동체들 (칸톤¹⁷) 사이에 생겼다. 왜냐하면 도시가 폭넓은 대외적인 상거래를 했던 다른 나라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스위스에서 도시들은 농촌과 완전히 분리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6 세기에 스위스의 도시들은 농촌이 붕괴할 때도 도움을 주었다. 이때문에 연합은 도시들과 농촌을 하나의 연방으로 통일하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존속시켰다.

그러나 본질상 국가는 자유 연합을 용인할 수 없다. 자유 연합은 국가의 입법자들을 경악하게 만든다. '국가 안의 국가!' 국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발적인 연합을 국

(Roger Bacon) 이 제시하고 이탈리아 대학들에서 수립된 과학적 방법은 자유도시들과 공동체 자유의 보호 아래 발전된 문명의 유산이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이 공동체들의 역사에 가득한 당파 내부의 싸움들을 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길거리의 난투극들, 봉건 권력자들과의 필사적인 투쟁, '구속 수공업자들'에 대한 '신수공업자들'의 반란, 이 투쟁의 유형과 복수에 대해서 잊은 것처럼 보인다.

아니, 난 이것을 절대로 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세 이탈리아의 두 역사 학자 레오 (Leo) 와 보타 (C.Botta) 처럼, 페라리 (G.Ferrari), 지노 카포니 (M.Capponi) 와 많은 다른 학자들처럼, 나는 이들 당파들의 갈등은 도시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담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갈등이 있을 후에도 도시의 삶은 새로운 일보를 나아갔다고 생각한다. 레오와 보타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들에서 발생한 길거리 충돌을 자세히 연구하고, 이 충돌들과 더불어 완성된 거대한 진보, 즉 모든 주민들에 대한 행복의 보장, 새로운 문명의 탄생에 대한 연구를 끝내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우리 시대의 모든 혁명가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이성 이 그런 것처럼, 코뮌이 **자신의 환경 속에 모순과 갈등을 허용할 때**, 바로 그럴 때에만 도덕적 완전성을 제시하고, 그럴 때에만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

그렇다. 이 갈등은 자유롭게 허용된 갈등이고, 그 어떤 외적인 세력의 개입도 없는 갈등이며, 국가의 개입이 없는 갈등이다. 이것은 국가가 서로 싸우는 세력 중 하나에게 유리하게 저울의 한 쪽을 엄청난 무게로 누르는 것과 다르다.

이 두 연구가와 유사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평화를 강요하는 것은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 대립하는 것들은 강제로 결합되어, 단일한 질서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개개인들과 작은 유기체들은 그들을 삼키는 거대하고 단일한, 무채색과 무생명인 전체의 희생이 된다.'**

자유도시들이 국가가 되고, 농촌과 외곽 도시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고, 즉 '거대한 무채색의, 무생명의 전체'를 창조하려고 애쓰기 전까지, 이들 도시들이 내적인 갈등을 통해 때때로 조금 더 강하게 자라고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거리에 무기가 부딪치는 소리가 들려도 자유도시들은 번성한 반면, 200 년 후 바로 그 문명은 국가의 형성으로 초래된 전쟁의 소음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문제는, 자유도시들에서 투쟁은 개인의 자유의 획득과 보존, 연합의 원칙, 자유로운 연합과 공동의 행동권을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와는 달리 국가는 개인의 억압을 위해, 자유로운 협약의 파괴를 위해, 왕, 재판관, 성직자 즉 국가 앞에서 모든 국민들을 똑같은 노예로 만들기 위해 전쟁하였다는 데 있다.

여기에 모든 차이가 있다. 죽이는 투쟁과 갈등이 있고, 또한 인류를 진보시키는 투쟁과 갈등이 있다.

¹⁷ 역주 - Kanton. 스위스의 행정단위.

16 세기에새로운, 현대적야만족들이나타나중세의모든자유도시문명을파괴하였다. 물론완전히파괴하지는못하였지만, 여하튼그들은문명의성장을적어도 2-3 백년억제하였고문명을다른방향으로향하게만들었다. 야만족들은개인의손발을묶고개인의모든자유를박탈하였다. 그들은사람들이자유로운자기주도와자유로운협약위에서수립한연합을잇고모든점에서유일한통치자에복종할것을요구하였다. 그들이내세운이유에따르면사람들사이의모든직접적관계는파괴되었다. 따라서국가와교회만이사람들을연합시킬권리를가진다. 또한국가와교회만이산업적, 상업적, 법적, 예술적, 사회적그리고개인적이해를관리할소명을갖는다는것이였다. 그러나이러한이해관계를위해 12 세기의사람들은 스스로직접연합하는것이일반적이였다.

그러면야만족은누구였는가? 그것은바로국가였으며, 그것은전쟁지휘관, 로마전통의후계자들인재판관, 성직자, 족세세력사이에새로나타난삼각연합이였다. 세세력은자신들의지배를상호보장하기위해서연합하였고, 사회를지배하고결국사회를억압하게될유일한권력을만들었다.

자연스럽게다음과같은질문들이제기된다. 이새로운야만족들은중세자유도시와같은강력한조직들을어떻게정복할수있었는가? 이들은이를위한힘을어디로부터떠올렸는가?

그들에게이힘을제공한것은무엇보다농촌이였다. 중세도시들은시민을해방시켰지만, 이와동시에, 고대그리스도시들이노예를해방시킬수없었던것처럼, 농민을농노상태에서해방시킬수는없었다.

사실도시를해방시킬때, 스스로수공업과농업을결합했던도시민들은거의모든곳에서농촌거주자들을자신들의해방사업에끌어들려고노력하였다. 2 세기동안에이탈리아, 스페인, 독일의도시민들은봉건영주와치열한전쟁을치렀고, 이투쟁에서놀라운영웅심과집요함을보여주었다. 그들은지배자들의성을정복하고그들을둘러싼봉건제도를붕괴시키기위해마지막힘을쏟아부었다.

그러나그들이이룩한성공은불완전했다. 전쟁에지친나머지그들은영주들과평화조약을체결하였고, 이때농민들의이익을희생시켰다. 도시의경계밖에서, 도시는단지전쟁을중단할목적으로농민을영주의손에넘겨주었다. 이탈리아와독일에서도시는영주가같은도시에산다는것을조건으로그를시민이라불렀다. 다른지역에서도시는농민에대한지배권을영주와나누어가졌고도시민 스스로가농민을지배하게되였다.

대신영주는자신들이경멸하고미워했던도시민에게복수하였다. 영주는자신의귀족가문들사이의적대감과복수때문에도시의거리를피로물들였다. 물론그

만들었다. 그결과농노제도는독일과동부유럽에서이론것과같은발전을이룰수없었다.

그리고 16 세기에유사한운동들이보헤미아의‘후스 (Huss) 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의‘재세레파’¹⁵라는이름으로중앙유럽에서점화되었다. ‘후란의시대’¹⁶란이름으로알려진이와유사한운동이 17 세기초에러시아에서도일어났다. 서유럽에서이것은봉건영주와봉건지주뿐만아니라교회와국가, 원시국가를위한교회법과로마법에대한반란이였다.

오랜세월이흐르는동안이운동의의미는어용역사가와교회역사가들에의해완전히왜곡되었고, 이제야비로소사람들은이것을어느정도이해하기시작하고있다.

한편으로이운동의표어는, 양심의명령외에는어느것에도복종할의무를갖지않는개인의완전한자유였고, 다른한편으로는공산주의였다. 훗날국가와교회가운동의가장격렬한옹호자들을소탕하고, 운동을교묘히자신에게유리하게바꿔버렸을때, 운동은혁명적성격을상실하고루터의종교개혁으로변질되었다.

운동은설교로시작되었고, 몇몇장소에서는무국가적아나키즘을실천적으로적용하기도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종교적형식들과혼합된것이였다. 그러나그당시에는불가피했던종교적형식들을건어내면, 우리는이운동이지금우리가대변하고있는사상적흐름과본질상유사하다는것을알수있다. 즉우리는그것에서고유의양심이인간의유일한법이되어야한다는원칙아래, 국가적인것이든신적인것이든모든법이부정되고있음을발견한다. 우리는운명의유일한관리자로서의공동체를방어하는것, 한마디로공산주의와평등을실천하려는노력을본다. 그것은봉건지주로부터땅을되찾아주고, 돈이든육체적인것이든국가에대한모든봉사를중단시키는것이였다. 예를들어사람들이성서의권위를인정하느냐고물었을때, 재세레파운동철학자들중하나인덴크 (H.Denck) 는스스로성서에서**자신을 위해**발견한규칙만이인간행동에서의무적으로지켜야할유일한것이라고답했다. 이모호한공식은교회용어에서차용한것이다. 이‘책 (성서)’의권위는공산주의와권력에대한‘찬’과‘반’의논거를손쉽게찾을수있게하고, 자유의선언에대한문제에서는특유의불분명한태도를보인다. 이모든것은운동의종교적색채와함께그속에패배의맹아를포함하고있었다.

도시에서발생한운동은즉시농촌으로확산되었다. 농민들은어느누구에게도복종하기를거부했다. 깃발대신에창에낳은장화나짚신을꽂았고, 지주들이점유한공동체토지를빼앗았으며, 농노제도의족쇄를부수었다. 또한그들은성직자와재판관을몰아내고, 자유공동체로조직되어갔다. 한동안이반란은갓태어난국가의존립자체를위협하기도하였다. 왕 혹은제국의권력은단지화형, 고문그리고교

¹⁵ 역주 - Anabaptist. 재침례파 (再浸禮派) 라고도한다. 신앙고백이불가능한영유아시기, 관습적인세례가아닌자각적인신앙고백이후의세례만이유일한세례라고주장한다.

¹⁶ 역주 - 러시아의이반 4 세의죽음을계기로시작된정치적혼란의시대 (1584-1613).

들의 폭동으로부터의 보호를 약속했을 때, 이미 권력의 독에 중독된 도시는 그것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들은 왕에게 대문을 열어 주었다.

이외에도 13세기부터 몽골족들은 동유럽을 정복하고 파괴하였다. 이제 모스크바에 몽골의 칸과 정교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황제 체제가 생겼다. 그 다음에 터키족이 유럽을 침략하고, 국가를 건설하였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파괴하였고, 1453년에는 빈까지 도달하였다. 터키족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의 중심인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에서 강력한 국가들이 탄생하였다. 동시에 유럽의 다른 쪽인 스페인에서 모로코인들의 추방은 카스티야(Castilla)와 아라곤(Aragon)에서 새로운 강력한 전제왕권이 수립되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전 제정권은 로마 교회와 종교 재판, 칼과 고문실에 의지하였다.

이 침략과 전쟁들은 불가피하게 유럽을 새로운 시대로, 전쟁 국가의 시대로 진입하게 만들었다. 전쟁 국가들은 모든 다른 도시들을 왕 혹은 대공의 도시로 '연합하기 위하여', 즉 복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도시들이 스스로 작은 국가들로 변신하자, 후자는 강력한 국가에 병합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VII

그러나 자유 공동체와 중세의 연방 체제에 대한 국가의 승리는 방해 없이 완성될 수 없었다. 심지어 국가의 최후 승리를 의심할 만한 시기도 있었다.

중부 유럽의 도시들과 넓은 농업 지대에서 민중 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형식과 외형 면에서 종교 운동이었지만, 의식주의 평등을 추구하는 순수 공산주의적 운동이었다.

14세기에 우리는 프랑스(1358년경)와 영국의(1381년경) 두 농민 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역사에서 자크리의 반란¹⁴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농민 지도자 중의 하나인 와트타일러(Wat Tyler)의 이름으로 불린다. 이 두 운동은 당시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그러나 두 운동은 주로 봉건 주주에 대한 것이었다. 진압되었지만, 영국에서 이 민중 봉기는 농노 제도에 중지부를 찍었다. 프랑스에서 자크리의 반란은 농노 제도의 발전을 저지하였고, 그것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¹⁴ 역주 - Jacquerie. 백년 전쟁 중 북프랑스에서 발생한 농민 폭동. 자크리는 당시 농민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자크를 집합 명사화한 명칭이다.

들은 도시 조합을 무시했으며, 불화를 이곳의 공동 재판소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길거리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이외에도 귀족은 낭비벽, 음모, 호화로운 생활, 왕과 주교의 궁전에서 습득한 교육으로도 시민을 타락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도시민을 자신들의 끝없는 다툼 속으로 끌어 들였다. 결국 도시민도 귀족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주인이 되고 도시 경계 밖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노동으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왕, 황제, 차르, 교황은 통치권을 확보하였고,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도시들을 복종시킬 수 있었다. 농민들이 즉각 그들을 따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여타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두었다. 그 결과 농민들은 도시를 방어하지 않았다.

왕의 권력은 농촌에서, 농촌 주민이 둘러싸고 있는 무장한 성에서 서서히 쇠약해져 갔다. 12세기에 왕의 권력은 단지 이름만으로 존재하였다. 지금 우리는 도둑의 우두머리들도 그러했음을 알고 있다. 우두머리들은 티에리가 증명한 것처럼 스스로 왕의 칭호를 가졌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거의 아무 의미가 없었다. 스칸디나비아 어부들은 자신들의 '어망의 왕'을 가졌고, 심지어 거저들에게도 자신들의 '왕'이 있었다. 왕, 제후, 코농¹⁵은 그저 일시적인 우두머리였다.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더 강력하고 혹은 더 교활한 제후가 다른 제후들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교회는 물론 그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제, 음모, 매수, 필요하다면 칼과 독약을 수단으로 제후는 다른 봉건 영주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모스크바의 황제 권력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¹² 왕권이나 타탄국은 소란스런 민회, 타르페이아의 절벽¹³ 혹은 강을 가진 자유 도시들이 아니었다. 폭군들을 위한 권력은 언제나 지방에서, 농촌에서 생겨났다.

프랑스에서 폭군들이 랑스 혹은 리옹에 자리를 잡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를 대신하여 파리를 선택했다. 당시 파리는 부유한 농촌 마을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들과 농촌 마을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그곳에 민회가 있는 자유 도시는 없었다. 영국에서 왕권은 인구가 밀집한 런던의 대문인 웨스트민스터에 자리 잡았다. 러시아에서는 수즈달과 블라디미르에서 실패한 후에, 왕권은 모스크바 강변 부유한 농촌 마을들 안에 세워진 크렘린에 자리를 잡았다. 노브고로드 혹은 프스코프, 뉘른베르크 혹은 플로렌시아에서는 절대로 왕권이 강화될 수 없었다.

이웃 농민들은 왕에게 식량, 말, 인력을 제공하였다. 탄생 중인 권력자들은 이외에도 공동체의 상업이 아닌 왕의 상업으로 부유해졌다.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옹호하였으며, 자신들의 재산으로 그들을 지원하였고, 마침내 왕의 도시를 위하여

¹⁵ 역주 - Konung. 왕을 의미하는 옛 북유럽어.

¹² 코스토마로프의 『러시아에서 군주제의 기원』을, 특히 『유럽 통보』에게 재된 것을 참조하라. 코스토마로프는 자신의 「자료집」 출간을 위해 이 논문을 부드럽게 썼다. 아마 검열의 요구 때문인 것 같다.

¹³ 역주 - Saxum Tarpeium. 로마의 카피톨리움 남서쪽에 위치한 절벽으로, 이곳에서 범죄자를 떨어뜨려 죽였다.

특별한성인과기적을만들어냈다. 교회는파리의성모혹은모스크바의성모를기록하게만들었다. 자유도시들이주교의권력으로부터해방되고젊은혈기로전진하려는바로그때, 교회는태동하던왕을수단으로서서히자신들의권력을부활시키는작업을진행했다. 교회는결국자신이선택한사람의요람을특별히친절한배려, 향, 황금으로감쌌다. 교회는그와연합하여자신의권력과영향력을회복하기를원했던것이다. 파리, 모스크바, 마드리드, 웨스트민스터등모든곳에서교회가어떻게왕혹은황제의요람을정성스럽게보호하는가를우리는알고있다.

교회는국가정신에입각한강한조직을갖고있었다. 또한모든사회계급에서찾아낸강한의지와기민한지성을소유한사람들을이용하여활동하였다. 교회는음모를꾸미는데능숙하였으며, 로마와비잔틴법에정통했다. 교회는자신의이상을즉성경의정신에입각한강력한왕권의확립을성취하기위해집요하게일했다. 왕은제한없는권력을갖지만, 최고성직자의명령에순종하며, 교회의손안에든세속의무기일뿐이었다.

16 세기에왕과교회라는이두패거리의협력은최고에달했다. 왕은이미자신의경쟁자들인영주들위에군림하게되었으며, 다음단계에그들의손은이제자유도시들을제압하기위해움직였다.

그렇지만 16 세기의도시도더이상우리가 12, 13, 14 세기에보았던것들이아니었다. 도시는 12 세기의해방혁명으로부터탄생되었지만, 주변농촌주민에게도심지어피난처로서후에도시성벽의경계로이주하여수공업을시작한도시민들에게도자신들의평등사상을확장시킬과감성을갖지못했다. 모든도시들에단순히‘가문’이라고불리는(12 세기의혁명을주도한) 구가문과(늦게도시로이주한) 신가문사이의차별이 나타났다. 구‘상인길드’는새로운이주자들을자신들의영역에받아들이려하지않았고, ‘신수공업자들’을자신들의상거래에참여하도록허용하지않았다. 도시의단순한상인길드는도시의재정을위해물건을팔던도시의상업에이전트였다. 그들은이제중개인과거간꾼으로변신하여해외무역을통해부를축적했고, 도시생활에동방의화려함을도입하였다. 나중에‘상인길드’는지주와성직자와연합하거나독점권을위해, 부에대한권리를위해가장가까운왕에게의지하였다. **공동체성을 포기하고, 사적인 것으로 변환**상업은마침내자유도시를무너뜨리고말았다.

이외에도처음에도시와민회를구성했던구수공업자길드는자신들이향유하던권한을신수공업자길드에게인정하려하지않았다. 신수공업자들은혁명의방법을통해평등권을확보해야했다. 혁명은실제로우리가역사를알고있는모든도시에서일어났다.

그러나혁명은대부분의경우에모든삶, 수공업, 예술의혁신을낳았다. 이런현상은플로렌시아에서분명하게발견된다. 하지만혁명은다른도시들에서 **빈자들(popolo basso)** 에대한 **부자들(popolo grasso)** 의승리로, 운동의진압으로, 무수한유형과처형으로끝났다. 특히, 영주들과성직자들이싸움에개입한곳에서그러했다.

말할것도없이, 마키아벨리즘을익힌왕들은자유도시의내부적인삶에개입할때, ‘부자들의박해로부터빈자들을보호한다.’는구실을내세웠다. 후에황제가되는모스크바대공은부자들로부터‘최하층민’과‘서민’을보호한다는구실로노브고로드와프스코프를정복하였다. 이러한현상은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등모든곳에서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인간의 개념 자체가 변화했기때문**에도시는파멸할수밖에없었다. 교회법과로마법은인간에대한이해를왜곡시켰다.

12 세기의유럽인은본질상연방주의자였다. 그는자유로운자기주도, 자유협약, 자발적연합을옹호하였고, 사회의출발점을고유의개성에서찾았다. 그는복종에서구원을찾지않았고, 사회구원자의도래를기다리지않았다. 기독교적혹은로마적가르침은그들과아무상관이없었다. 그러나한편으로언제나권력지향적이었고, 영혼, 특히신자들의노동을지배하려했던기독교회의영향아래, 다른한편으로 12 세기부터강력한영주, 왕그리고사제의궁에침투하기시작하여곧대학에서사랑받는교과목이된로마법의영향아래, 처음에는반목했지만잘어울리게된두가르침의영향아래인간의이성은서서히타락하고, 결국사제와법률가가점점더많은영향력을갖게되었다.

사람들은권력을사랑하기시작했다. 도시에서하층수공업자들의반란이일어나면, 사람들은누군가구원자에게도움을청하게되었다. 그들은독재자혹은도시왕을선출하고반란자들을진압하기위한무제한의권력을이들에게부여하였다. 그리고독재자는교회와동방의전제국가로부터배운온갖세련되고잔혹한방식으로권력을이용하였다.

교회는그를지지하였다. 최고성직자에게복종하고교회의충실한무기가되는성서적왕의출현은교회의꿈이었다! 이외에도교회는열성적으로합리주의정신과‘이교적’사상을증오했다. 전자는제 1 차르네상스시대에즉, 12 세기의르네상스시대에자유도시를지배하던정신이였다. 후자는새로발견된고대그리스문명의영향을받아사람들에게자연으로의복귀를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교회는교황, 성직자, 교회일반에대항하여, 원시기독교의기치를걸고봉기하려는흐름을증오했다. 교회가애호하던무기인화형, 고문, 교수대가이교도들을향해투입되었다. 이때교황, 왕혹은독재자중누가무기가되든지교회에는상관하지않았다. 화형, 고문대그리고교수대만이이교도들과의싸움에서제구실을하였다.

로마법률가들과성직자들. 이두집단의영향아래자유로운자기주도와자유협약의오랜연방주의정신은소멸되고, 훈육의정신, 지배와피라미드형조직의정신에자리를내주고말았다. 부유한계급과마찬가지로민중도박으로부터구원자를찾았던것이다.

구원자인왕은소란스런도시의민회에서멀리떨어져자신이건설한도시에부를축적하고, 자신에게복종하는귀족들과농민들의호위를받았다. 왕이도시대문앞에등장하여빈자들에게는부자들로부터의강력한보호를, 부자들에게는빈자